

SEMINAR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 주최 세미나

“교회학교 부흥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정
교회 학교를 연계하라!



2008년 10월 20일(월) 오후 6~9시
새문안교회 언더우드 기념관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
www.ipsagi.org
070-7017-1471

환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 현상 가운데 교회학교의 위기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학교의 위기는 교회학교 학생 수의 격감이라는 양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교회교육의 무기력이라는 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교회학교의 위기는 '신앙의 대잇기'의 위기로, 이는 한국교회의 성장의 정체는 물론 대사회적 기독교의 영향력 약화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입시, 사교육 문제로 고통 받는 학생들의 실제적인 고민을 교회 교육이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분리되어 통전적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정-학교의 연계를 통해, 교회학교 부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의 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 공동대표
박상진, 방선기, 정병오

목 차

1. 교회학교의 위기 진단 및 교회-가정-학교의 연계를 통한 교회학교 부흥 1
- 박상진 소장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장신대 교수)
2. 입시, 사교육 팽창에 응전하는 교회교육 29
- 방선기 목사 (직장사역연구소 소장, 기윤실 이사)
3. 캠페인 소개 “주일에는 먼저 교회로 - 당신의 자녀는 주일 아침, 어디에 있습니까?” 37
- 정병오 대표 (좋은교사 운동)
4. 교회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부모 교실 41
- 신은정 연구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부모팀)
5.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59
- 유경상 대표 (Christian Thinking Center, 샘물학교 연구간사)
6. 교회 방과 후 학교, 주말학교, 대안학교 운영 모델 77
- 소종화 대표 (트리니티 스쿨, 비전중학교 교사)
7.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97
- 장슬기 교사 (안산 동산고, 협동학습연구회 과학과 대표)

한국 교회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 교회, 가정, 학교의 연계-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I. 문제제기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 현상 가운데 교회학교의 위기를 빼 놓을 수 없다. 교회학교의 위기는 교회학교 학생 수의 격감이라는 양적인 현상¹⁾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교회교육의 무기력이라는 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학교의 위기는 ‘신앙의 대잇기’의 위기와 기독교인의 정체성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교회의 성장의 정체는 물론 대사회적 기독교의 영향력 약화라는 결과를

1) 필자가 속해있는 교단(예장 통합)의 경우 지난 10년동안의 교회학교 학생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유치부 학생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도의 본 교단 유치부 학생수는 126,428명이었는데, 2005년에는 113,467명으로 감소하여서, 지난 5-6년 사이에 1.03%의 감소율을 보였다. 급격히 감소하는 해에는 한 해에 7.1%나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부의 경우는 1996년도의 교회학교 학생수가 298,274명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269,91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0.95%가 감소한 수치인데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1997년도에는 전년 대비 9.7%나 감소하였고, 2001년도에는 4.5%나 감소하였다. 년도별로 증감의 차이가 근소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동부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만은 부인할 수 없다. 중고등부 학생수의 추이는 격감하고 있다고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7.8%의 학생수가 감소하였는데, 1996년도에 중고등부 학생수가 230,672명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80,496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1997년도부터 2002년 사이에는 무려 3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도에는 한 해에만도 20.2%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율은 교회학교 중고등부의 존립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27-28.)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가? 교회학교가 위기라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그러한 현상에 대한 진단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른 대안 모색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교회학교 위기를 진단하는 다양한 접근과 방식이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채 근대주의적으로 교회교육을 접근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입장도 있다.²⁾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주목하면서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활자인쇄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도 있다.³⁾ 또는 교회학교 교사의 복음적 열정 상실을 그 원인으로 보면서 교사의 영성회복과 영성훈련, 사명감 고취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입장도 있다.⁴⁾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런 방식의 접근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학교의 위기를 진단하려고 한다. 교회학교 및 교회교육의 위기는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교회, 가정, 학교가 분리된 것에 연유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통합하는 것에서 그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학교의 위기를 진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회학교 침체의 원인과 그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교회교육의 위기 진단에 대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교회교육의 위기가 교회, 가정, 학교의 분리현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교회, 가정, 학교를 연계하는 통전적 기독교교육을 제안할 것이다.

2) 고용수 외,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6)과 박상진, “포스트모던 기독교교육의 가능성 모색: 머리의 교육에서 마음의 교육으로” 『장신논단』 제18집, 2002, 727-759를 참조.

3) Pierre Babin, *The New Era in Religious Communication*, 유영난 역,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새시대』 (왜관: 분도출판사, 1993)와 Babin, *Internet God*, 이영숙 편역, 『디지털시대의 종교』 (서울: 한경PC라인, 2000) 참조. 메빅(Mebig)이나 워킹, 영화로 드리는 예배 등의 접근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4) 최윤식, 『교사열정이 주일학교를 살린다』 (서울: 규장, 2001)를 비롯해 교회학교 부흥과 관련된 대다수의 책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II. 한국 교회교육의 위기 진단

오늘날 한국 교회교육의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교회와 학교,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와 가정의 분리라고 할 수 있다. 왜곡된 교육현상으로 인해서 공통당하는 학생들의 필요에 응답하지 못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팽창으로 몰아가는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대안적 가치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교회학교성장 또는 교회성장을 추구하는 ‘교회주의’에 예속되는 경향이 있다. 가정의 붕괴와 기독교 가정교육의 약화 또는 상실은 교회교육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교회, 가정, 학교의 분리는 통전적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일꾼 양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궁극적 기독교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한국 교회교육의 위기를 진단하려고 한다.

1. 한국 교회학교 학생들의 교육의식 조사

한국 교회학교의 학생들은 교육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들은 어느 정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교회교육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입시와 사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은 무엇이며, 이것이 주일 성수와 교회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응답하기 위해 한국의 교회학교 학생 1019명을 대상으로 교육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였으며, 1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019부의 설문지가 회수됨으로 회수율은 67.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며, 설문조사의 결과는 SPSS를 통해 통계분석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배경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배경 변인>

변인	설명	빈도수	백분율(유효%)
1. 성별	남	492	48.3
	여	527	51.7
	합계	1019	100.0
	결측값	5	
2. 학년	초등학교(5,6학년)	314	30.9
	중학교	363	35.7
	고등학교	339	33.4
	합계	1016	100.0
	결측값	8	
3. 주소	서울 사교육 과열지역	141	14.4
	서울 사교육 비과열지역	688	70.3
	경기 사교육 과열지역	37	3.8
	경기 사교육 비과열지역	113	11.5
	합계	979	100.0
	결측값	45	
4. 부모님의 교회 출석 여부	부모님 모두 교회 출석	731	72.6
	부모님 중 한 분만 출석	169	16.8
	안 다니신다	107	10.6
	합계	1007	100.0
	결측값	17	
5. 신앙 경력	1년 미만	45	4.4
	1년 이상~5년 미만	91	9.0
	5년 이상~10년 미만	123	12.1
	10년 이상	754	74.4
	합계	1013	100.0
	결측값	11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의 분포는 각각 48.3%, 51.7%였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은 도시명과 동명을 적게 하였고, 이를 사교육 과열지역(서울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경기도의 경우: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지역)과 비과열지역(그 외의 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서울 사교육 비과열지역이 70.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 모두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72.6%로 다수로 나타났고 부모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10.6%에 해당되었다. 학생의 신앙경력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경우가 74.4%로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은 4.4%에 불과하였다.

<다니고 있는 학원의 수>

	빈도	유효 퍼센트	(역)누적퍼센트
없음	237	23.3	100.0
1개	278	27.3	76.7
2개	227	22.3	49.4
3개	147	14.5	27.1
4개	65	6.4	12.6
5개 이상	63	6.2	6.2
합계	1017	100.0	

교회학교 학생들이 몇 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 학원을 2개 이상 다니는 학생 수가 49.4%, 3개 이상은 2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도 23.3%나 되지만 76.7%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거의 절반이 2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드러나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학원의 영향이 많은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 중, 고별 다니는 학원 수>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원의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초등학교 (5,6학년)	빈도 31	49	76	68	37	50	311
	학년의 % (10.0%)	(15.8%)	(24.4%)	(21.9%)	(11.9%)	(16.1%)	100.0%
중학교	빈도 79	109	95	48	21	9	361
	학년의 % (21.9%)	(30.2%)	(26.3%)	(13.3%)	(5.8%)	(2.5%)	100.0%
고등학교	빈도 123	120	55	30	6	4	338
	학년의 % (36.4%)	(35.5%)	(16.3%)	(8.9%)	(1.8%)	(1.2%)	100.0%
전체	빈도 233	278	226	146	64	63	1010
	학년의 % (23.1%)	(27.5%)	(22.4%)	(14.5%)	(6.3%)	(6.2%)	100.0%

학원은 저학년일수록 더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원을 2개 이상 다니는 초등학생은 74.2%, 3개 이상 다니는 초등학생은 49.8%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원을 2개 이상 다니는 중학생은 47.9%, 그리고 학원을 2개 이상 다니는 고등학생은 28.1%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과목의 학원(예체능 계통 포함)을 다니는 것에 비해 중고등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위해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학교교육, 사교육) 현실에 대한 견해>

	빈도	유효 퍼센트
희망이요 기쁨이다	66	6.5
고통이다	370	36.4
희망인 동시에 고통이다	386	38.0
희망도 고통도 아니다	195	19.2
합계	1017	100.0

한국 교회학교 학생들의 교육현실에 대한 견해는 ‘고통스러운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이 ‘희망이요 기쁨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6.5%에 불과하였고, ‘고통’으로 응답한 학생이 36.4%, 그리고 ‘희망인 동시에 고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38%로 나타났다.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현실은 희망의 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고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학교 선생님(혹은 전도사님, 목사님)의 나의 학업에 대한 고민 이해>

	빈도	유효 퍼센트	응답 묶음
전혀 그렇지 않다	166	16.4	34.5%
그렇지 않다	183	18.1	
보통이다	376	37.2	37.2%
그렇다	212	21.0	28.3%
매우 그렇다	74	7.3	
합계	1011	100.0	

교회학교 교역자나 선생님이 자신의 학업 고민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34.5%)이 긍정적인 응답(28.3%)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교회학교가 자신들의 고민과는 거리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학생들의 고민에 보다 적극적

으로 응답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고민>

	빈도	유효 퍼센트
학업(성적)	470	49.2
진로	219	22.9
성격	43	4.5
친구/이성	46	4.8
용모/건강	63	6.6
가정	33	3.5
신앙	81	8.5
합계	955	100.0

교회학교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업(성적)’으로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9.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의 고민거리는 ‘진로문제’로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학업이나 성적,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앙에 관한 고민을 가장 심각한 고민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8.5%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교회학교가 그들의 고민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학업/성적과 관련된 고민은 주로 누구와 상담하는가?> (복수응답) (N=994)

	빈도	유효 퍼센트
부모	473	47.6
목사님, 전도사님	25	2.5
교회 선생님	22	2.2
학교 선생님	70	7.0
학원 선생님	54	5.4
친구	322	32.4
선배	22	2.2
형제, 자매	56	5.6
기타	110	11.1

학업과 관련된 고민에 대해서 누구와 상담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와의 상담(47.6%)이며, 그 다음이 친구와의 상담(32.4%)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은 모두 합해도 4.7%밖에 되지 않아서 학원 선생님(5.4%)이나 학교 선생님(7.0%)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크리스찬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교회가 관심을 갖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학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상담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업/성적과 관련된 고민은 주로 누구와 상담하는가?> (학교급별)

이유	전체 퍼센트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부모	(47.6%)	198	64.9	174	49.0	98	29.9
목사님, 전도사님	(2.5%)	1	0.3	9	2.5	14	4.3
교회 선생님	(2.2%)	0	0.0	8	2.3	13	4.0
학교 선생님	(7.0%)	14	4.6	22	6.2	34	10.4
학원 선생님	(5.4%)	19	6.2	10	2.8	25	7.6
친구	(32.4%)	57	18.7	130	36.6	134	40.9
선배	(2.2%)	0	0.0	7	2.0	15	4.6
형제, 자매	(5.6%)	11	3.6	17	4.8	27	8.2
기타	(11.1%)	33	10.8	37	10.4	40	12.2

학업과 관련된 고민에 대한 상담을 누구와 하는 지를 학교급별로 교차분석을 해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친구와 상담하는 경우가 40.9%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또래 집단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친구들과 접하고 교제하되 기독교적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보다 건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 학업/성과 관련하여 받고 있는 도움>

	빈도	유효 퍼센트
기도(회)	217	22.7
목사님, 전도사님과의 상담	22	2.3
교회 선생님과의 상담	50	5.2
학습 지도	36	3.8
독서실 등의 공부 공간	76	7.9
특강(학습, 진로 등에 관한)	38	4.0
없다	475	49.7
기타	42	4.4
합계	956	100.0

교회학교 학생들이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교회학교에서 받고 있는 도움은 ‘기도(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22.7%로서 도움의 유형 중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등 교역자와 교회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 받는 도움은 모두 합해도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현상은 거의 절반인 49.7%가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그동안 교회와 학교가 얼마나 분리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교회가 학생들의 학업에 관해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함을 강조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에서 학업/성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도움>

	빈도	유효 퍼센트
기도(회)	235	25.7
목사님, 전도사님과의 상담	77	8.4
교회 선생님과의 상담	52	5.7
선배와의 상담	55	6.0
독서실 등의 공부 공간	157	17.2
학습 지도	75	8.2
특강(학습, 진로 등에 관한)	89	9.7
기타	173	18.9
합계	913	100.0

교회에서 학업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도움으로는 기도가 25.7%로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학생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독서실 등의 공부 공간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비율도 17.2%를 차지하는데, 이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자신들의 학업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이유> (복수응답) (N=998)

	빈도	유효 퍼센트
학원(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252	25.4
학원에 가지는 않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	78	7.8
교회에 친한 친구가 없어서	93	9.3
예배나 교회 활동이 재미없기 때문에	202	20.2
늦잠을 자서	244	24.4
시험(한자, 컴퓨터, 영어 등)으로 인하여	114	11.4
기타	135	13.5

최근 교회학교 학생수의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이는 교회학교의 위기만이 아니라 '신앙의 대잇기'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이 교회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으로서 25.5%를 차지하고 있다. '학원에 가지는 않지만 공부를 위해서'(7.8%)나 '시험 등으로 인하여'(11.4%)를 합한다면 44.7%나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예배나 교회활동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학업 문제, 특히 학원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원문제를 비롯한 입시, 사교육 문제에 대한 교회의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이유〉 (학교급별)

이유	전체 퍼센트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학원(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25.4%)	49	16.1	122	34.6	81	24.3
학원에 가지는 않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	(7.8%)	22	7.2	20	5.7	36	10.9
교회에 친한 친구가 없어서	(9.3%)	7	2.3	45	12.7	41	12.4
예배나 교회 활동이 재미없기 때문에	(20.2%)	77	25.2	66	18.7	58	17.4
늦잠을 자서	(24.4%)	39	12.8	82	23.2	122	36.6
시험(한자, 컴퓨터, 영어 등)으로 인하여	(11.4%)	64	21.0	35	9.9	14	4.2
기타	(13.5%)	59	19.3	42	11.9	32	9.6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학교급별 응답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학생의 경우가 가장 학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4.6%). 이는 평균인 25.4%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토요일에 늦잠을 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는데 36.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예배나 교회활동이 재미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5.2%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시험으로 인한 결석이 21%로서 중고등학생보다 그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초등학생들에게도 학업의 영향력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교회학교 학생들의 교육의식에 관한 조사에 근거하여 교회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회학교 학생수의 감소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학업문제이며, 학생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도 학업문제이기에 교회가 학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려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오늘날 사교육의 팽창은 교회교육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주일 오전에 학원을 가는 것이 교회교육을 파행을 가져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일 오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학교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회가 학업과 진로문제, 그리고 입시, 사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확립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요청된다. 목회자와 교회교육지도자, 교회학교 교사들이 먼저 기독교적 교육관을 갖고 이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도와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교회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닫고, 부모들을 단지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기독학부모’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학부모교실 등과 같은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기독교적 자녀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때 교회학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오늘의 교육현실과 교회교육의 상황은 새로운 교회교육의 패러다임을 요청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교회와 학교가 분리되거나, 교회와 가정이 분리된 ‘교회 학교식 모델’이 아니라 교회-가정-학교가 연계되는 통전적 기독교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을 끌어안고, 그러면서도 부모를 기독학부모로 세움으로 학생 개개인의 삶이 기독교적 삶으로 성숙되고, 그들의 진로와 생의 여정(life journey)을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며 격려할 수 있는 교회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도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오늘의 교육현실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이나 입시제도에 대한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교육문제, 특히 입시, 사교육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입시, 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에 더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여 교회가 교육의 영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 기독교교육 비전의 상실과 분리 현상

1) 기독교교육 비전의 상실

오늘날 교회학교 교육 위기의 원인은 전체 기독교교육 비전의 상실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한 아이에 대한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그 삶의 전체를 포괄한다. 신앙성숙과 학업을 통한 지성의 계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형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일군 양성은 교회교육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포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통전적 기독교교육의 비전을 갖지 못한 채 교회, 가정, 학교가 분리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각각의 교육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격려되고 강화되지 않는다면 ‘신앙’을 형성하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 교회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학업의 문제를 끌어안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신앙과 학문, 영성과 지성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이원론적 입장에 빠지게 되며, 결국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여 교회학교를 등한시하게 된다. 가정이 학교와 분리되면 부모가 왜 자녀를 교육시키는지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세속적 경쟁주의 교육에 매몰되고 만다.

오늘날 편협한, 그리고 왜곡되고 무기력한 교회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기독교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어떤 인간상을 추구할 것인지? 기독교교육을 받은 결과가 어떤 모습일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군으로 쓰임받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에 응답하면서 기독교교육의 비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독교교육 목적 진술, 그리고 기독교교육의 비전 진술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닐 포스트만(Neil Postman)은 그의 책 『교육의 종말』(*The End of Education*)에서 ‘end’라는 영어단어가 ‘종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하면서 “목적은 상실한 교육이 바로 교육의 종말”이라고 주장하였다.⁵⁾ 분명하고도 통전적인 기독교교육의 목적이 진술되었다면 그에 따른 통합적인 교육과정의 작성이

5) Neil Postman, *The End of Education*, 차동춘 역, 『교육의 종말: 무너지는 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서울: 문예출판사, 1999).

필요하다. 이 교육과정은 지, 정, 의를 포함하고 지성과 영성을 통합할 뿐 아니라 교회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이다. 구체적인 온전한 교육과정이 아니어도 ‘기독교교육의 통합적인 목적’과 이를 이루는 교육과정의 개략적인 ‘청사진’을 갖는 것은 분리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기본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전체적인 전망 없이 교회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각각 이루어진다면 분리되고 왜곡된 교육, 그래서 무기력한 교육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된 기독교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교회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자.

2) 기독교교육의 분리 현상

(1) 교회와 가정의 분리

교회교육의 위기는 교회와 가정의 분리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단지 교회학교 모델이 아니라 교회(회중)공동체를 강조하는 신앙공동체 모델이든, 교회의 전 생활이 교육한다는 교육목회 모델이든 이들이 여전히 갖게 되는 한계가 바로 교회와 가정의 분리 현상이다. 교회공동체 안에서 신앙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그 교육이 연속성있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학생의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자녀들에게 기독교교육을 하여야겠다는 의식을 갖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교회교육과 일맥상통하는 기독교교육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 신앙교육의 회복은 물론 교회교육을 회복시키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교육을 교회학교 교육으로 이해하고 학생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다면, 부모들을 가정에서의 올바른 기독교교육자로 세우는 일의 교육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다. 미국 아틀란타에 위치한 Northpoint Community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학교 체제를 바꾸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성경공부 교재를 개발하여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교회와 학교의 분리

교회와 학교의 분리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종교와 교육의 분리, 교회와 국가의 분리와도 관련되는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의 역할을 점차 학교가 담당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종교를 배제한 ‘순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육만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교육은 종교적일 수 밖에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순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교육은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에 중요한 질문은 ‘어떤 가치’에 입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스테픈 웹(Stephen H. Webb)은 최근에 출간한 그의 저서 『종교를 학교에 가져가기』(*Taking Religion to School*)라는 책에서 이러한 분리적인 현상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학업과 학문, 학교생활과 진로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통전적인 기독교교육의 비전을 이루어가기가 어렵다. 오늘날 교회와 학교는 제도적으로 철저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서로를 연계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사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특히 중고등부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현상은 입시와 사교육의 팽창으로 인해서 교회교육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은 학업문제로서 매년 200명에 이르는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이유도 역시 학업문제이다. 그런데 교회교육이 이 학업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이들의 고민을 끌어안지 못할 때에 교회교육은 입시, 사교육의 언저리에 위치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가야하는 입시, 사교육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피해가면서 교회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회와 학교의 연계를 통해 입시, 사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을 갖고, 전체 기독교교육의 목적과 비전 안에서 학업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할 때에 기독교교육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 위치를 옮겨 올 수 있을 것이다.

6) Stephen H. Webb, *Taking Religion to School: Christian Theology and Secular Education*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0), 16.

(3) 가정과 학교의 분리

기독교교육의 위기는 가정과 학교의 분리 현상에도 기인한다. 가정과 학교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왜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자녀교육의 주체는 부모이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해야 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교육의 사명을 맡기신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부모가 자녀교육을 학교에 일정부분 위탁하는 행위이다. 여전히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이 있고, 학교에서 과연 부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 부모가 왜 자녀가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를 망각하거나 무관심해 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학교가 어떤 가치관을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는 가정과 학교가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최근 홈스쿨링(Home schooling)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의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가정의 부모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기독교 가정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교육을 통해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필요가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든지 학교의 교사를 격려하는 편지를 쓴다든지, 그리고 학교를 위한 부모기도회로 모인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정과 학교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학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방식이 가정에 잘 전달되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모는 가정과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갖고 있어야 하며, 더욱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획일주의적, 경쟁주의적 가치관으로 팽배한 ‘입시위주’의 교육 상황 속에서는 부모가 학교교육을 향해 갖는 기독교적 성찰은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부모가 학교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을 상실한 채 학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기독교교육은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교회교육의 쇠퇴와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III. 통전적 기독교교육: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된 기독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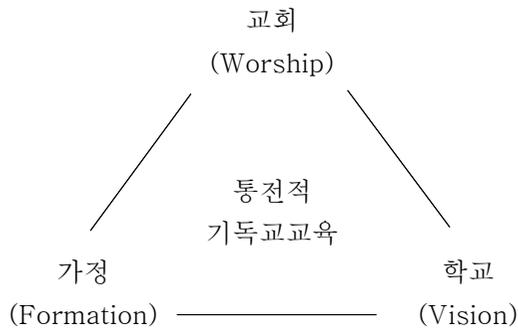
기독교교육은 본래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군으로 세움받는 과정은 통합되어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신앙성숙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일군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독교교육은 교회교육, 더군다나 교회학교 교육으로 축소되어서는 안되고, 기독교가정교육이나 기독교학교교육으로 축소되어서도 안된다. 교회, 가정, 학교가 통합된 전체 기독교교육과정의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통전적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각 영역이 서로 연계되어야 하며, 각 영역의 교육은 전체 구조 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⁷⁾

가정, 교회, 학교, 이 세 영역 안에서 모든 기독교교육의 요소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 각 영역 안에 케리크마, 레이투르기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다케의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각 영역의 교육이 지니는 독특성이 있어서 다른 영역의 교육과 연결될 때 전체 기독교교육이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⁸⁾ 먼저 가정교육은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formation)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회학교에서 배운 성경지식이나 기독교적 깨달음이 습관화되고 삶의 실천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를 형성시키는 기독교 가정교육이 요청된다. 가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해가고 기독교적 인격과 영성을 형성해갈 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론과 실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다.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worship)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다. 일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초월자를 대면하는

7) 여기에서 '연계'는 '합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영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독교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호 관계를 맺고, 전체 기독교교육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8) 종래에는 기독교교육이 교회교육, 그 중에서도 교회학교 교육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가정에 관련된 교육은 가정사역자들에게, 학교에 관련된 교육은 일반 교육학자들에게 맡겨져 마치 기독교교육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동안 잃어버린,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교육의 영역을 되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 전반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만이 아니라 교육학과의 상호교류를 심화하여 교육 전반을 통해 '통전적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험과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는 삶의 방향을 확인케 하고 그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학교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 지, 그 비전(vision)을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되 은사의 계발을 통해 구체적인 직업과 전공으로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도록 돕는다. 기독교학교는 전체 기독교교육 안에서 비전을 이루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가 기독교학교가 아닌 일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기독교교육 안에서 학교교육이 지니는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된 기독교교육의 패러다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 1>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된 통전적 기독교교육

교회교육이 가정교육과 연계되지 않거나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할 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기독교적 습관형성과 성품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야 하는 기독교교육의 목적 달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가정교육이 기독교적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킬 때 기독교적 세계관 정립과 기독교적 비전 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기독교교육의 목적 달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 교회교육을 소

홀히 여길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와 합일되는 영성이 약화될 수 있고, 이는 기독교교육의 방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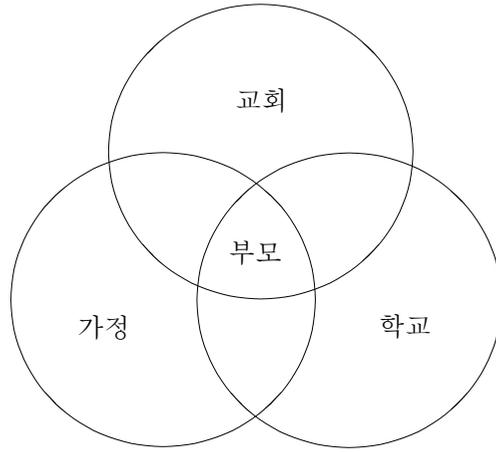
교회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이 세 영역이 연계되어 통전적인 기독교 교육을 이루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교회는 이 세 교육의 영역이 연계되어 기독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독교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여야하고, 교회-가정, 가정-학교, 학교-가정이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각각이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의 방안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연계	교육방안
가정-교회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의 부모교육 -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교재 개발 -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의 만남 - 부모 자녀교육상담 - 교회학교의 가정 심방 - 유아세례 교육의 강화 - 유아세례 받은 아이의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 - 입교교육의 강화 - 가족이 함께하는 절기 예배 및 교육 - 간세대교육의 강화 - 다양한 가족모임을 통한 교육
교회-학교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확립 - 교과목에 대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 학문과 신앙의 통합 -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 기독교적 진로 세미나 - 지역에 있는 학교와의 네트워크 - 지역에 있는 학교의 기독교사와의 만남 - 방과후학교, 주말학교 개설 - 교회의 기독교대안학교 설립 - 주일에 학교, 학원 안가기 운동 - 대안적 가치관 교육으로서 교회교육 - 기독교학교에 대한 교회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자와 학교의 교육지도자와의 만남 - 교회의 기독교사 모임 - 학교 내의 CA, 기독교사 신우회 지원 - 학원선교단체의 지원 및 연계 - 학교별 기도모임
가정-학교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부모교실 개설 - 부모의 주인의식 강화 - 학교 운영위원회에의 적극적 참여 - 사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확립 - 자녀의 은사발견 및 개발 -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개발 - 학교에서 부모기도회 - 교사에게 격려의 편지 쓰기 - 교사의 가정방문 - 부모가 자녀, 한 과목 이상 가르치기 -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갖기 - 그릇된 입시, 사교육에 대한 가치관 비판 - 기독교부모운동을 통한 교육참여

<표 1> 연계별 교육방안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되는 기독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부모이다.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위탁하였다(신 6:4-9).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 올바르게 성숙하고 지성을 갖추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군으로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세워야할 책임이 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부모가 학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정 부분을 위탁하는 것일 뿐 부모의 교육적 책임은 여전히 지속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홈스쿨링은 이러한 부모의 책무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교회학교에 보내는 것도 이러한 부모의 교육적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역할 분담이다. 부모는 학교의 교장 및 교사와 교회학교의 교역자 및 교사와 협력하면서 자녀교육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부모의 중심적 역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교회, 가정, 학교에서 부모의 중심적 역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되는 기독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모를 기독교적으로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부모가 기독교적 자녀교육관을 지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때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의 교육이 일관성을 지니고 기독교교육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교육은 기독교교육의 핵심 과제이다. 그러나 이 때의 부모교육은 소위 가정사역세미나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과는 달리 가정과 교회, 가정과 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교회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의 부모교실이나 자녀들의 학업문제와 학교와의 관계까지를 포함하는 기독교학부모교실 등은 좋은 시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의 입시, 사교육에 관한 의식을 깨우치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자녀교육을 바라보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입시, 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도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된 통전적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교육고통을 빼놓을 수 없다. 수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입시지옥과 사교육팽창으로 인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교회교육은 이러한 왜곡된 교육에 대한 대안적 가치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교육으로 분리, 제한되고 있다. 가정은 교회교육이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관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보다는 왜곡된 세속의 가치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 가정, 학교가 분리된 교육현실 속에서는 기독교 인재양성을 기대할 수 없다. 교회학교의 위기에 대한 진정한 극복은 신앙공동체를 강조하거나 교육목회로 접근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교육이 가정교육, 학교교육과 연계됨으로써 통전적인 기독교교육을 구현할 때만이 가능하다.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되고 통합되는 통전적 기독교교육이 실천됨으로 좁은 의미의 신앙성숙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양성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고용수 외.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박상진. “포스트모던 기독교교육의 가능성 모색: 머리의 교육에서 마음의 교육으로.” 『장신논단』. 제18집, 2002.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정용섭. 『현대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최윤식. 『교사열정이 주일학교를 살린다』. 서울: 규장, 2001.

Babin, Pierre. *The New Era in Religious Communication*. 유영난 역.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새시대』. 왜관: 분도출판사, 1993.

_____. *Internet God*. 이영숙 편역. 『디지털시대의 종교』. 서울: 한경PC라인, 2000.

_____. *How Faith Mature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Foster, Charles R. *Teaching in the Community of Faith*. Nashville: Abingdon, 1982.

_____. *Educating Congregations*. Nashville: Abingdon, 1994.

Harris, Maria.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고용수 역. 『회중 형성과 변형을 위한 교육목회 커리큘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_____. *Teaching and Religious Imagination*. 김도일 역. 『가르침과 종교적 상상력』.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3.

Lynn Robert W. & Wright, Elliott. *The Big Little School: 200 Years of the Sunday School*. Birmingham: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0.

Nelson, C. Ellis. *Where Faith Begi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1

Postman, Neil. *The End of Education*. 차동춘 역. 『교육의 종말: 무너지는 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1999.

Smart, James D.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장윤철 역.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1.

Webb, Stephen H. *Taking Religion to School: Christian Theology and Secular Education*.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0.

Westerhoff III,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3.

_____.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Revised Edition. Harrisburg, PA: Morehouse Publishing, 2000.

교회학교 학생들의 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

안녕하세요.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부르심의 사명에 정진하고 있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입시와 기독교교육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회와 학교, 가정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교회교육을 활성화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교회 학생들의 의식 조사를 통해 연구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오니 바쁘고 번거롭더라도 설문에 정성껏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08년 9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박상진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나 글로 답하십시오.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년
① 초등5 ② 초등6 ③ 중1 ④ 중2
⑤ 중3 ⑥ 고1(인문) ⑦ 고1(실업) ⑧ 고2(인문)
⑨ 고2(실업) ⑩ 고3(인문) ⑪ 고3(실업)
3. 주소 _____ (예: 서울시 광진구/ 성남시 분당구)
4. 부모님의 교회 출석 여부
① 부모님 모두 교회 출석 ② 부모님 중 한 분만 출석 ③ 안 다니신다
5. 신앙경력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표를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의 번호에만 체크하고, '기타'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써주기 바랍니다)

6.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의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⑥ 5개 이상
7. 일주일 동안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없음 ② 1~5시간 ③ 6~10시간 ④ 11~15시간
 ⑤ 16~20시간 ⑥ 21시간 이상
8. 우리나라의 교육(학교교육, 사교육)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희망이요 기쁨이다 ② 고통이다
 ③ 희망인 동시에 고통이다 ④ 희망도 고통도 아니다

* 다음 질문에서 해당되는 란에 V표 하십시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질문	1	2	3	4	5
9	나는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10	대학 진학은 전도유망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11	지금은 학생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2	대학 진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학원에 다니는 것이 좋다					
13	교회학교 선생님(혹은 전도사님, 목사님)이 나의 학업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시험 기간에 교회에 가는 것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					
15	나는 주일에 학원에 가거나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					
16	나는 학원에 가거나 공부 때문에 교회에 결석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성적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교회 활동(학생회 임원, 수련회 등)을 자제하는 편이다.					

18. 주일에 학원을 가기 위해 교회학교 부서 예배에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9. 학생들이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학원(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② 학원에 가지는 않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
 ③ 교회에 친한 친구가 없어서 ④ 예배나 교회 활동이 재미없기 때문에

MEMO

입시 사교육 팽창에 응전하는 교회교육

방선기 목사 (직장사역연구소 소장, 기윤실 이사)

서론

최근에 기독교 교육과 관련해서 두 종류의 세미나의 내용을 보았다. 하나는 기독교 교육학자의 사상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학교 운영에 필요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었다. 두 개가 다 아주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다. 그런데 마치 구멍이 뚫린 통에 담은 좋은 음식들처럼 느껴졌다. 지금 교회교육은 입시와 사교육으로 인해 구멍이 뚫려 있다. 교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멍이 뚫리지 않은 교회가 없다. 이 통에는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아도 저장되지 않는다. 다 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먼저 할 일은 입시와 사교육으로 인한 구멍을 막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 변화와 함께 구멍을 막을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1. 교회교육의 변화

(1) 일상의 삶에 변화를 주는 교육

신앙교육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성도들의 삶 중에서 종교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종교교육이란 말로도 사용했다. 그런데 신앙교육은 신앙을 기초로 해서 삶이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개인의 성품이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도록 돕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삶이 달라지도록 돕는 것이다. 가정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지만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돕는 것이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에서는 학교생활을 바로 하도록 돕는 것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생활을 돌아보고 크리스천답게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지적하고 바르게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중요한 교육이 된다. 성인에게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교회를 향한 가장 안타까운 비난이 신앙과 삶의 괴리였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그동안 교육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으로 일상의 삶에 변화를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우리사회에서 사람들의 추구하는 목표는 성공이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목표가 바로 성공이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다. 입으로 성공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아도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목적을 보면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좋은 학교에 가려는 것도 결국은 성공하기 위해서이다. 아마도 그런 노력이 세상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요즘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소비해 버리는 것 같다. 그렇게 해도 객관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대다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공을 못했다는 열등감에 살게 된다. 그리고 성공을 했다는 사람도 정말 행복을 누리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세속 사회에서도 요즘은 성공보다는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속적인 성공 신드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교회 자체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 흔히 대형교회가 되면 성공한 교회가 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실패한 교회처럼 여겨지는 것 자체가 세속의 성공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치 않는다. 세속 사회에서의 성공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돈과 명예를 얻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성공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교회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 세속적인 성공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경적인 성공관을 가르치지 못한다. 세속적인 성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종교적인 내용으로 수정 보완해서 가르치는 형편이다. 성공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3) 진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과거에는 교회에서 신앙 좋은 아이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가르쳤다. 동시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나 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목사가 되라는 안내는 잘 한 편이다. 그러나 목사가 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한 진로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이었다. 혹 목사가 되지 말라고 권유할 때도 특정한 직업을 위한 안내가 아니라 장로나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식의 권유가 대부분이었다. 한 마디로 교회 교육에서 아이들의 장래의 진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로 교육은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별로 없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부모 개인의 희망사항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관검사가 되라는 등 의사가 되라는 등,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부였다. 자녀들의 적성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없이 그랬던 것이다. 학교는 조금 나아야 하는데 학교도 별 차이가 없었다. 대학진학을 지도할 때 전공보다는 학교의 이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고 싶지 않은 전공을 택하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교육의

책임자들이 범하는 엄청난 실수이다.

가정과 학교가 그러는 것을 보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른 안내를 해주어야 하는데 교회는 이 문제에 일단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내할 수 있는 지침도 없었다. 이제 세상이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줄 책임이 있다.

진로 교육은 어떤 직업을 택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친다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성경적인 직업관에서 출발해야 한다. 세속 직업을 갖는 것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덜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정도는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 단순히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2. 입시준비의 바른 지침을 위한 제언

교회교육의 기본을 이렇게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바른 지침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입시의 목표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업이나 직장을 갖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따라 교육을 한다면 달라야 한다.

(1) 좋은 학교

지금 우리사회의 문제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그러다보니 좋은 중학교가 생기면 그 학교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욕심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에 많은 허점이 있다.

좋은 학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보통 좋은 학교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명문학교를 지칭한다. 그런 학교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학교가 될 수는 없다. 진짜 좋은 학교는 사람들의 능력이 취향에 맞는 학교이다. 능력이 안 되는데 어거지로 명문학교에 들어갔다면 그 학교는 그 아이에게 좋은 학교가 될 수 없다. 평범한 학교에 갔더라면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공부했을 아이가 명문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서 낙오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전공은 말할 것도 없다. 인기가 있는 학과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맞지 않아서 그만 두고 다른 전공을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좋은 학교는 몇 개의 학교로 한정되지 않는다. 물론 학교의 교육형편이 아주 열악한 학교는 피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학교는 좋은 학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좋은 학교는 훨씬 주관적이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학교가 진짜 좋은 학교다.

명문학교를 찾는 데는 나중에 사회에서 알아주기 때문이다. 이른 바 우리 사회의 학벌문화가 그렇게 만든다고 한다. 한편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한 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모든 사람이 명문학교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객관적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모두가 명문학교에 가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명문학교를 나오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조금 높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의 인정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개인의 능력으로 판가름이 나게 된다. 앞으로 점차 우리 사회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

(2) 좋은 직업/직장

좋은 학교에 가려고 애쓰는 이유를 물어보면 결국은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좋은’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좋은 직업이나 좋은 직장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곳, 그리고 안정이 보장되는 곳 등을 말한다. 그러나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없다면 좋은 직업도 좋은 직장도 아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든 것을 이유로 직업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편이다. 평생 원하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처음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그런 직장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의 자신의 뜻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젠가 학교 선생님 한분과 이야기 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새로 교사가 된 사람들에게 교사를 지망한 이유를 물었더니 대부분이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 자신에게도 불행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불행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그 손해를 보게 된다.

3. 바른 사교육의 실천을 위한 제언

우리사회의 사교육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 부동산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한다. 가정마다 사교육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이들은 사교육 열풍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교회도 사교육 바람에 안전하지 못하다. 사교육 때문에 주일 예배조차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사교육에 지친 아이들은 교회에 관심을 쓸 여유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바로 이해하고 과도한 아이들이 사교육에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1) 사교육의 순기능

원래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들의 몫이었다. 요즘은 관심을 끌고 있는 홈스쿨은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기에 학교가 존재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육은 학교 소관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학교도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예체능의 경우, 학교가 개인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과목의 경우도,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가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보완해주는 사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사교육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꼭 필

요하다고 보겠다.

(2) 사교육의 역기능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교육은 그런 정도를 한참 벗어났다. 일단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되었다. 공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대체하는 정도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말이 좋아 사교육이지 이미 교육의 의미를 잃어버린지 오래다. 입시를 위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되어버렸다. 물론 개중에는 교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입시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공부 기술을 연마하는 곳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로 이미 말했지만 모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주는 요인이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자기 동기가 없이 공부에 끌려 다니게 되었으며, 눈 앞에 성적을 올리는데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 것을 알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사교육을 절제하려 하지 않는다. 막연히 사교육을 안 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교육은 교육의 필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교육은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데 내 아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심리에서 출발해서, 내 자식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욕심으로 강화가 되어, 주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한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지속하게 된다.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불안, 욕심, 사회적 압력-는 다 불신앙의 요소가 숨어있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욕심을 더 잘 절제할 수 있으며 주변의 압력에 의해 끌려가지 않고 소신껏 결정할 수 있다.

교회교육에서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점을 짚어 주는 한편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도록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사교육이 유익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교육 점검 리스트를 통해서 사교육을 점검해보자.

사교육 점검 리스트

	매우그렇다	그렇지않다
1.사교육비 때문에 가정경제의 압박을 느낀다	5	4 3 2 1
2.사교육비 때문에 현금을 하기 힘들다.	5	4 3 2 1
3.사교육 때문에 부부가 갈등이 있다.	5	4 3 2 1
4.사교육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한다.	5	4 3 2 1
5.사교육을 결정할 때 자녀들과 의논하지 않는다.	5	4 3 2 1
6.사교육을 결정할 때 주변/옆집의 영향을 받는다.	5	4 3 2 1
7.사교육 때문에 아이가 교회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5	4 3 2 1
8.사교육을 시킬 때 주일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5	4 3 2 1
9.사교육을 결정할 때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다.	5	4 3 2 1
10.사교육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냥 계속한다.	5	4 3 2 1
11.사교육을 공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5	4 3 2 1
12.사교육을 위해서 이사 갈 것을 고려한다.	5	4 3 2 1

(3) 사교육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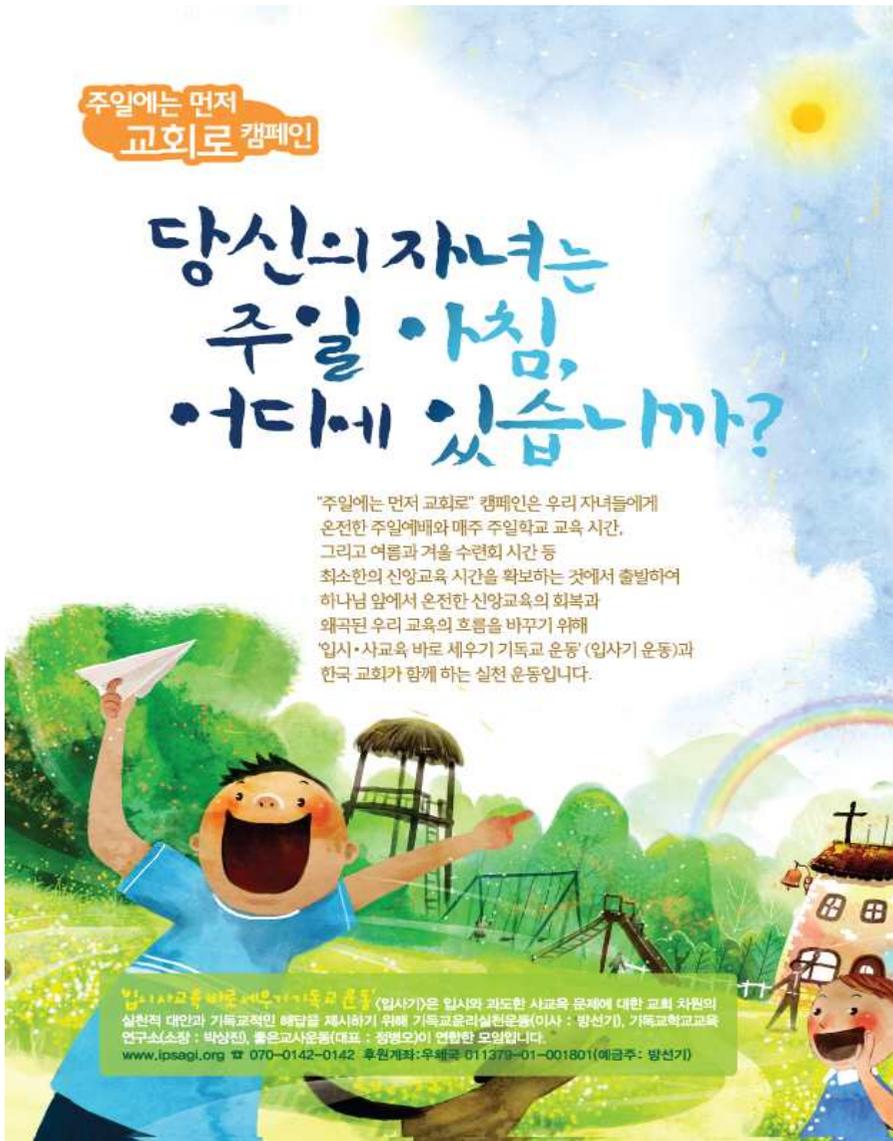
교회교육에서 사교육을 대체할 획기적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교회 내에서 사교육을 대체할 공부방 같은 것을 시작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에 고3 후배들을 몇 사람 데리고 교회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가르쳤던 적이 있다. 그 후에도 후배들에게 비슷한 교육을 한 기억이 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헌신된 성도들이 자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들이 아이들을 신앙적인 바탕 위에서 교과목을 가르친다면 일반 사교육에 빼앗길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입시 사교육으로 인해 구멍이 뚫린 교회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문제가 금방 쉽게 사라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시간이 걸릴 일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교회 교육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입사기 캠페인

주일에는 먼저 교회로 (마6:33)

- 당신의 자녀는 주일 아침, 어디에 있습니까? -



주일에는 먼저 교회로 캠페인

당신의 자녀는 주일 아침,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에는 먼저 교회로" 캠페인은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주일예배와 매주 주일학교 교육 시간, 그리고 여름과 겨울 수련회 시간 등 최소한의 신앙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교육의 회복과 왜곡된 우리 교육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입사·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 (입사기 운동)과 한국 교회가 함께 하는 실천 운동입니다.

입사기 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 (입사기)은 입사와 과도한 사교육 문제에 대한 교회 차원의 실천적 대안과 기독교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 : 방선기),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 박상진), 좋은교사운동(대표 : 정병오)이 연합한 모임입니다.
www.ipsagi.org ☎ 070-0142-0142 후원계좌:우체국 011379-01-001801(예금주: 방선기)

“주일에는 먼저 교회로” 캠페인 계획안

1. 운동의 필요성

명문 대학을 이상시하고 맹목적 무한경쟁 속으로 아이들을 몰아넣는 세상의 교육풍토 가운데서 기독교인들도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교육 등 최소한의 신앙 교육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교회는 신앙의 단절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에 제동을 걸고, 기독교인들과 학부모가 신앙의 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필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2. 캠페인

- 1) 캠페인 명 : “주일에는 먼저 교회로”(마 6:33)
- 2) 슬로건 : “당신의 자녀는 주일 아침 어디에 있습니까?”
- 3) 취지 : 우선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와 교회교육 시간, 그리고 여름과 겨울 수련회 시간 등 최소한의 신앙교육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온전한 신앙교육의 틀을 마련해 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실천 지침

* 학생·학부모

-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고, 학교 생활과 진로를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묻는다.
- 주일에는 온전한 예배, 충실한 교회 교육, 믿음의 친구들과의 교제에 최우선의 순위를 두고, 공부 등 나머지 일들은 후순위로 둔다.
- 여름, 겨울의 신앙 수련회는 신앙교육의 매우 중요한 기회로 알고 반드시 참석하며, 이로 인한 학교 혹은 공부 진도의 불이익을 믿음으로 감수한다.

* 교회

- 교회 지도자들은 공부와 성적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온전한 자녀교육의 원리와 신앙 교육 우선의 가치를 끊임없이 가르치며 본을 보인다.
- 자녀들에게 맞는 교회 교육(주일 및 절기별 수련회)의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하며, 모든 교회의 자녀들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목회적 지도를 강화한다.
- 입시와 공부 관련 교회 내 들어와 있는 기복적 문화를 제거하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도전을 주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

* 학교교계

- 기독교 학교는 주일 등교를 시키지 않으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각자에게 주어질 소질과 적성을 깨우치는 교육을 통해, 맹목적으로 공부시간을 늘리는 경쟁체계의 변화를 유도한다.
- 기독교사는 기독교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깊고 폭넓은 공부의 재미와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 공부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지도하며 도와준다.
- 교계와 기독교NGO는 아이들이 최소한의 쉼과 교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사교육 시간을 제한하며, 지나친 입시 경쟁을 억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4. 운동 확산 전략

1) 참여 교회 모집

- 담임 목사와 당회 차원에서 참여하는 교회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 만약 캠페인 발족식 이전에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발족식 때 함께 하면 좋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발족식 이후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참여 교회가 할 일

- 교인들에게 주일에는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와 신앙교육을 받는데 우선권을 두도록 가르치고 강조한다.

* 이 내용들이 단지 목회자 차원의 선포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종의 회개와 신앙각성 운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교인들의 상황에 대한 파악, 특강, 설교, 기도회 등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 교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 공문을 보내서, 주일 오전에는 학교 등교나 학원 강의 개설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주일 오전 강의를 개설해 학생들을 오게 하는 학원에는 교회의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킴)

* 학교나 학원은 계속해서 주일 등교나 강의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교인들에게만 불참을 요구하는 것은 반쪽짜리 운동이고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주일에는 교회 먼저'를 강조하는 한편 실제로 아이들이 속한 학교와 학원이 주일 오전에 아이들을 부르지 않도록 교회 차원(혹은 지역 교회 연합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운동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만약 강남의 몇몇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해 실제로 강남 대치동의 학원들이 주일 오전에 강의 개설을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3) 입사기 운동 차원에서 할 일

- 참여 교회 모집 및 훈련, 정보 나눔 : 학교나 학원에 보낼 공문 양식 제공 등
- 입사기 차원에서 주일 등교를 시키는 학교와 학원에 공문 보내기
- 기독교 학교 담당자들과의 간담회
- 홍보 물품 제공 : 포스터, 엽서 등
- 인터넷 서명 받기

교회학교 부모를 위한 기독교부모 교실

신은정 연구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부모팀)

오늘날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 교육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과제이면서도 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은 자녀들의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안겨주며 사교육비의 팽창은 가정경제를 무리하게 하며 영어교육의 붐으로 인한 어학연수나 조기교육은 가정해체까지 이어지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은 희망이라기보다 오히려 고통에 가깝다. 이 고통의 문제는 교인들의 삶에도 깊숙이 파고든다. 일부 학생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불안하다고 토로하며 부모들 또한 자녀의 예배나 봉사를 입시이후로 미루는 경향을 가져왔다. 교육의 고통에 대해 교회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마땅히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이러한 교육의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교육의 회복을 위하여 고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이 기독교학부모교실의 운영이 되었다. 기독교학부모교실은 특별히 학령기 학부모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육의 회복은 국가주도의 정책이나 학교차원이 아니라 자녀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학부모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가 부모교육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 부모를 위한 교육은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으나 학령기 부모에 대한 교육은 부재함이 더 큰 이유가 되겠다.

기독교학부모교실의 구체적인 필요성은 다음 몇 가지로 열거될 수 있다.

첫째, 교회내의 학부모를 위한 것이다. 교인들의 대부분은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하여는 기독교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릇된 교육열로 인해 자녀와 부모 둘 다 향방을 잃은 고통을 겪고 있다.

둘째, 기독교학부모 교육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여호와 경외교육이 입시교

육의 풍조에 밀려 힘을 잃고 있음은 입시와 시험기간이 되면 현저하게 비어있는 교회의 빈자리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독교학부모 교육을 통해 기독교학부모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돕는다.

셋째, 기독교학부모 교육은 기독교학부모의 정체성을 찾도록 함으로써 부모 자신의 회복을 가져오도록 하며 이는 자연스레 자녀들과의 어긋난 관계를 바로 세울수 있게 된다.

넷째, 기독교학부모 교육은 사회적 필요에 대한 응답이다. 교육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바른 실천과 대안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으며 왜곡되고 그릇된 세상 풍조를 변화시키는 교육의 회복으로 이끌 수 있다.

1. 기독교학부모교실 목적과 슬로건

기독교학부모교실은 다음 네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 학부모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 기독교 학부모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기르도록 위탁받았고,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존재임을 안다.

둘째, 왜곡된 자녀교육의 모습을 깨닫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녀를 이해한다.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공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중보하고, 학교를 향한 학원선교를 지원하는 건전한 학부모 공동체를 형성케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학교 운동에 동참하여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토록 격려한다.

기독교학부모교실은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기독교학부모, 교육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나는 기독교학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독학부모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발견한 기독학부모를 통해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와 사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교육의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가슴 절절한 기독학부모의 고백은 내 아이만을 위한 교육을 넘어 이 땅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간절한 교육의 회복을 꿈꾸게 된다.

[그림1]기독학부모교실 플랜카드



2. 기독학부모교실을 위한 연구

기독학부모를 세우고 섬기기 위한 기독학부모교실은 2006년 9월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초기 영락교회 선교부 소속 학원선교팀의 지원으로 6개월간의 연구를 시작했다. 우선 기존의 부모교육에 대한 조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학부모회와 학부모운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영락교회 제 4여전도회를 대상으로 강좌 개설 요망 요일 및 시간,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분야등의 요구조사를 실시했다. 수집된 여러 문헌자료와 설문등을 바탕으로 8주간의 기독학부모교실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8주간의 교육은 단순히 학부모가 수동적인 청강생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향한 여정길의 동역자로 세워져 있다. <표1>은 6개월간의 연구일정이며 <표2>는 8주간의 교육과정에 대한 주제를 정리해두었다.

<표1>기독학부모교실 연구 일정

	2006							2007	
	9/1주	9/2주	9/3주	9/4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차 자료수집 설문지 작성	---->								
설문지 배포 및 분석		---->							
커리큘럼 확정			---->						
강사선정 및 섭외				---->					
2차 자료수집 자체 세미나 강사 원고 집필					---	---->			
원고 수집 및 수정							---->		
교재 발간, 홍보자료								---	---->
홍보 및 모집								---	---->

<표2> 기독학부모교실 교육과정

여정	주 제	주제성구
첫 번째 여정	기독학부모는 누구인가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
두 번째 여정	기독학부모의 교육보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창 12:1~4)
세 번째 여정	기독학부모의 자녀 이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삿 13:12)
네 번째 여정	여호와 경외 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잠 1:7)
다섯 번째 여정	성품교육	“하나님의 형상대로”(창 1:27)
여섯 번째 여정	학업과 은사 이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다니엘 1:8)
일곱 번째 여정	기독학부모와 학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빌 2:2)
여덟 번째 여정	기독학부모 운동과 하나님 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

3. 기독학부모교실의 개요

기독학부모교실의 여덟 번의 여정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주제로 묶을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처음과 두 번째 여정인 ‘기독학부모와 교육’이다. 첫 여정길인 ‘기독학부모는 누구인가?’에서는 교육의 현실속에서 애통해 하는 동시에

기독학부모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회복의 주체로 설수 있도록 힘을 얻는다. 두 번째 여정길인 ‘기독학부모의 교육보기’에서는 인간관, 지식관, 사회관을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갖도록 이끈다.

두 번째 주제는 기독학부모와 자녀이다. ‘기독학부모의 자녀이해’, ‘여호와 경외교육’, ‘성품교육’, ‘학업과 은사이해’의 걸쳐 총 4번의 여정을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게 된다. ‘세 번째 여정, 기독학부모의 자녀이해’에서는 하나님, 자녀, 학교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므로 자녀이해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모색하게 되고 ‘네 번째 여정, 여호와 경외교육’은 자녀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신앙의 대잇기에 대한 여러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 번째 여정, 성품교육’은 성품의 의미를 알고, 성품교육에 대한 기독학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는다. ‘여섯 번째 여정, 학업과 은사이해’는 학업과 은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소명의 길임을 알고, 자녀의 학업과 은사를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마지막 주제는 기독학부모와 학교이다. ‘일곱 번째 여정, 기독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이 땅의 기독학부모운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논하는 ‘여덟 번째 여정, 기독학부모 운동과 하나님 나라’는 기독학부모가 건전한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의 희망으로 발돋움하도록 격려한다.

기독학부모교실의 8주간의 교육 여정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각 여정은 여행길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 여행길에 오르며: 도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학습자의 호기심 자극 및 그 날 배우게 될 내용과 연관된 주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 잘못 들어선 길: 현재 삶에서 왜곡되어져 있는 현상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특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모습들 안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성찰해본다.
- 바른 지도 찾기: 왜곡되어진 모습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적 관점으로 방향을 재 설정하는 단계이다.
- 지도를 따라서: 바른 관점으로 새롭게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도록 하는 시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기독학부모가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이나 과제가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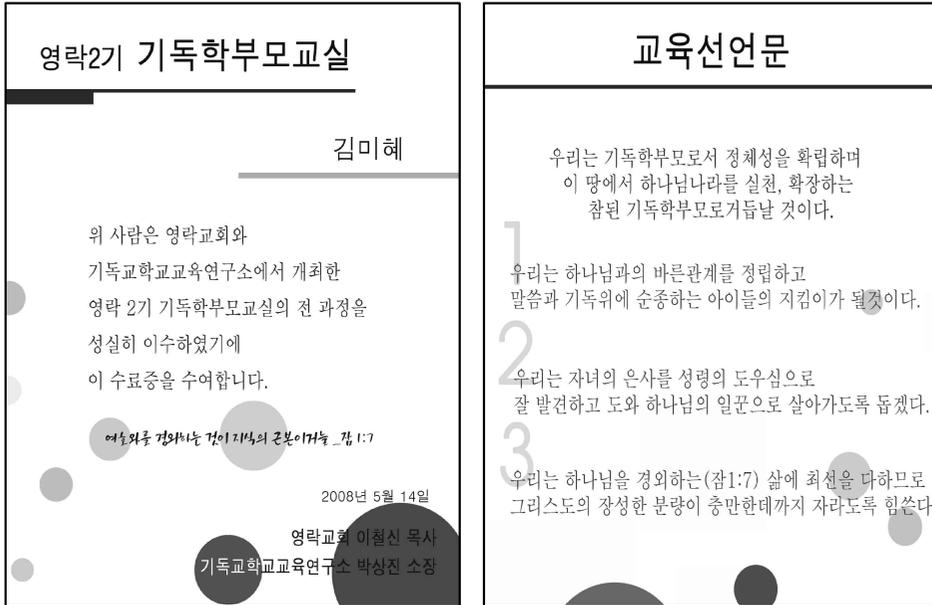
이렇게 6개월간의 연구개발 된 기독교학부모교실은 영락교회 기독교학부모교실 1기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기독교학부모교실 교재는 1기가 마친후 수료생들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수정 보완하여 ‘기독교학부모교실’ 교재로 2007년 10월에 출간하여 지금까지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학부모교실의 실제 운영은 <표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음을 여는 시간과 조별 교재 나눔 그리고 워크숍을 통한 공동체의 결단을 중보기도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는 기독교학부모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 또한, 기독교학부모로서 사적인 차원의 자녀 양육만을 생각했다면, 기도를 통해 교육 자체에 대한 공적인 책무성 또한 지니게 한다. 중보기도는 참석자를 기독교학부모의 사명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과제는 기독교학부모들이 집에 돌아가 1주 동안 지내면서, 강의에 대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거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과제로 내주고 다음 시간을 다음 강을 시작하기 전 마음열기 시간에 반드시 확인하고 발표를 하게끔 한다.

<표3>기독교학부모교실 진행

시간	순서	할당	내용
9:50~10:00	좋은 배경음악	10분	준비 시간_ 차 한 잔과 다과
10:00~10:10	마음 열기	10분	찬양,묵상 ⁹⁾ 을 통해 몸과 마음 열기,
10:10~11:40	주제 나눔 및 워크숍	90분	교재 중심으로 강의 나눔 및 워크숍
11:40~11:50	중보기도	10분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11:50~12:00	광고	10분	광고 및 귀가

9) 묵상의 예: 나는 기독교학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 우리의 자녀가 한글과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연필을 잡더니 이제는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1을 알고 1을 알아가던 귀한 우리의 자녀들..그러나 되돌아 보면 잘못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친구의 자녀가 한글을 더 많이 알고 숫자를 더 많이 알면 긴장해서아이를 재촉했던 일, 용기 없다면 자신 없다는 아이 등을 떠밀고 하기 싫다는 것 억지로 시킨 일, 교회에 다니고 기도는 하지만 세상의 기준대로 방법대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자 한일,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주일예배도 아이의 급한 일, 시험일에 밀려 한 두 번 자연스럽게 빠지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대우받고 성공하고 남을 부릴 수 있다며 명문대 다니는 이웃의 자녀를 부러워하고 못한 성적을 내미는 자녀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왜곡된 교육현상이 드러나고 학교마다 그릇된 가치관이 팽배하며 이

[그림2]기독학부모교실 수료증과 교육선언문



기독학부모교실을 성실히 이수한 기독학부모에게 수료식 때 [그림2]와 같은 기독학부모교실 수료증과 교육선언문을 수여한다. 교육선언문은 여덟 번째 여정시에 진행된 워크숍에서 기독학부모가 실제로 작성한 것으로 더욱 의미를 담고 있다. 수료증과 교육선언문은 기독 학부모교실을 이수하고, 자신이 기독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준다.

4. 기독학부모교실 운영 보고

기독학부모교실은 2007년 3월 14일 영락교회를 시작으로 하여 2008년 6월 17일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까지 총 다섯 번의 기독학부모교실을 개설·운영을 마쳤고 현재 높은뜻 승의교회 청어람에서 20여개의 교회에서 모인

땅의 교육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녀들의 어려움보다 당장 이 시류에 적응하기 바빴고, 나의 자녀에게 유리하게 되기를 욕심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하고 주의 교양으로 양육할 귀한 천사인 우리의 자녀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가정과 학교에 사회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기독학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 땅 교육의 희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34명의 기독교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2008.10.7~11.25). 현재까지 수강자는 총 271명이고, 그 중에 211명이 수료하였다. 지금까지의 개설되었던 기독교학부모교실의 일시, 시간 및 장소, 참석자에 대해 <표4>에 정리해 놓았다.

매 기수마다의 특징이 있는 데 기독교학부모교실 이후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기독교학부모모임이 정착된 교회도 있고 수료생들 중 임원으로 봉사하여 그 다음 기수를 섬기는 자발적 헌신자가 있기도 했다. 또한 기독교학부모교실에 대한 도전을 받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기독교학부모교실을 시작하는 적극적인 수료자들을 통해서 들쭉날쭉 번져가는 기독교학부모교실의 또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한 기독교학부모교실을 통해 기독교교육에서 지향하는 가정-교회-학교가 유기적으로 교육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 또한 발견되었다.

<표4> 기독교학부모교실 운영 보고

	일시	시간 및 장소	참석자
기독교학부모교실 1기 (영락 1기)	07.03.14~05.22 매주 수요일/ 8주간 10:00~12:00	영락교회	영락 교인 64명 등록/ 56명 수료
기독교학부모교실 2기	07.10.4~ 11.22 매주 목요일/ 8주간 10:00~12:00	높은뜻송의교회 청어람	기독교학부모, 기독교학부모교실에 관심 있는 사역자 26명/ 23명 수료
기독교학부모교실 3기 (영락 2기)	08.03.19~05.07 매주 수요일/ 8주간 11:40~01:30	영락교회	영락 교인 57명 등록/ 48명 수료
기독교학부모교실 4기 (지도자과정)	08.04.22~04.23 화, 수/ 1박 2일간	장신대 세계교회 협력센터	기독교학부모교실 개설을 위한 목회자, 학교 관계자, 기독교학부모교실에 관심 있는 분, 49명 등록/ 49명 수료
기독교학부모교실 5기	08.04.29~06.17 매수 화요일/ 8주간 10:00~12:00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거룩한 빛 광성 교인, 드림학교 학부모 41명 등록/ 35명 수료
기독교학부모교실 6기	08.10.7~11.25 매주 화요일/8주간 10:30~12:30	높은뜻송의교회 청어람	기독교학부모, 기독교학부모교실에 관심있는 분 34명 등록/현재 진행 중

특별히 기독교학부모교실 4기는 지도자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주로 기독교 학부모교실을 개설하기 위한 목회자나 학교 관계자가 함께했다. 수료 후 기독교 학부모교실 매뉴얼 연구를 통해 개발된 매뉴얼북과 CD를 제공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도자과정의 수료자중 몇은 벌써 교회에서 기독교학부모교실을 진행함으로 연구소에서 수료증을 제작하여 전달하였는데 교회가 더욱 기독교 학부모를 섬길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큰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다.

5. 기독교학부모교실의 의의와 전망

기독교학부모교실을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학부모교실은 교육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기독교 학부모들의 애통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었다. 자녀문제를 하소연하거나 조언을 구할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하던 학부모들이 모여, 본인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는 사랑방이 되었다.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바로 기독교학부모의 회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둘째, 교육의 주체로서의 기독교학부모의 역할을 회복 시켰다. 그동안 교육의 책임을 학교와 교회 또는 사교육기관에 맡겨 버린 기독교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그 권리와 의무를 다시 찾게 되었다.

셋째, 기독교학부모로서 서는 여정은 바로 기독교학부모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다. 더 이상 왜곡되고 분리된 자가 아니라 기독교와 학부모가 통합된 '기독교학부모'의 모습이 되도록 격려했다. 이는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모델이다. 이러한 '기독교학부모'의 삶은 신앙을 바로 서게하며 자녀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도록 한다.

넷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전도회의 역할에 대한 재 정립의 시간이 되었다. 학교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여전도회의 영역에서 학원선교라는 적극적 관심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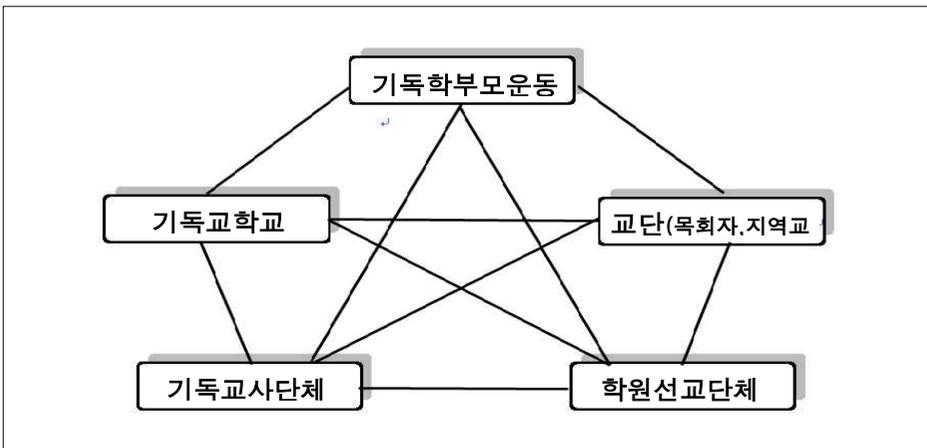
다섯째, 교회가 기독교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교회교육만을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기독교교육의 범위에서 학교교육의 영역은 배제했었다. 교회가 기독교학부모교육에 관심을 가지거나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느끼는 고통을 공감하게 되고, 이 땅에 풀리지 않는 교육문제의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여섯째, 가정, 교회, 학교가 연합하여 교육공동체 형성을 하는 구심점을 마련한다. 반 브루멜른은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에서 이들 기관을 교육의 삼각대로 표현할 만큼 자녀교육에 있어 이들 기관의 연합은 중요하다. 그 삼각대의 중심에 바로 기독교학부모가 있다. 교회나 학교에서의 기독교학부모교실을 통해 교육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기독교학부모들이 가정과 교회를, 교회와 학교를, 학교와 가정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교회교육에 국한되었던 관심이 기독교학교운동이나 사립학교법 문제 등으로 한국의 교육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기독교학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교육의 문제를 풀 키워드가 바로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변해야 교육이 변하고, 학부모가 변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교육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학부모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기독교학부모를 깨워 교육을 변혁시킬 임무를 주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학부모교실이다.

[그림3] 기독교학부모운동의 공동체적 노력



기독학부모사역은 기독학부모교실을 개설하고 교육하는 이외에도, 감당해야 할 임무나 풀어야 할 과제가 무궁무진하다. 우선은 교회 내 기독학부모회를 조직하고 다음은 학교 별로 기독학부모회가 구성하므로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의 문제 접근할 수 있다. 또 이런 모임들이 연합하면 그것이 바로 기독학부모단체가 된다. 이런 연합체는 세상의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인이 일으키는 새로운 운동(movement)의 시작이 된다. 기독학부모운동은 기독학부모가 잃었던 권리와 의무를 되찾게 해줄 수 있다. 또한 세상에서 기독학부모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책임감을 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그림3]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동체적인 연합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교육을 향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 이런 공동체적인 노력의 한 예로 6월 24일에 출범하는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이하 입사기 운동)을 들 수 있다. 입사기운동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와 기윤실과 좋은 교사 운동 세단체가 입시와 사교육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기독교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빌2:2)’ 공동체적인 사역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을 믿는다.

기독학부모교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함께 여행을 시작하자. 여행길에 오르다가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내 바른 지도를 찾아 보이시고, 그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교육이 펼쳐질 때가 올 것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기독학부모교실의 개설에 대한 문의는 본 연구소로 하면 된다
(문의전화 : 02-6458-3456)

예시: 여섯 번째 여정, ‘학업과 은사이해’ 진행의 매뉴얼¹⁰⁾

목표	1. 기독교학부모는 학업과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소명의 길임을 안다. 2. 기독교학부모는 그릇된 지식관과 성공관, 강요된 학업성취 추구, 입시 풍토 등이 왜곡된 교육현실임을 깨닫는다. 3. 기독교학부모는 신앙이 학문의 뿌리이며 힘이고, 자녀의 은사를 기쁨으로 알아 학업성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2장, 전도서 3장 22절, 고린도 전서 12장 29~31

단계	교재	PPT	시간 (120분)	내용	준비물
도입	93	2	10	학업과 은사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	화이트보드 매직, ppt, 교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모습 돌아보기 묵상 • 기도(묵상 후 기도) 지혜와 지식의 주이신 하나님! 이 땅의 교육현실을 기독교학부모인 저를 통해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대로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주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아뢰는 부모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악 ppt 교재
전개	94~96	3~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 들어선 길 무조건 올려라,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아이, 소명과 상관없는 진로	ppt, 교재
	96~102	5~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지도 찾기 - 다니엘 - 학업성취, 은사발견 	ppt, 교재
	부록	7~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지도 찾기 -거창고 (직업심계) -바른 역할행동 	ppt, 교재
			9	5	내 꿈은 사랑입니다.
적용 (워크숍)	-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를 따라서 	종이

10) 본 예시는 지도자 과정의 매뉴얼북에 있는 내용이다.

				-기독교학부모로 나아가기 결심 - 학업과 은사에 대한 10가지 실천 조별발표(적어서)	
초월 (과제)	105	11		• NIE 남편, 자녀와 함께 하기, • 생애 주기표 완성하기 (교재에 자녀와 함께 하도록) • 학업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편지쓰기 (편지지는 각자 정성스럽게 준비 하여 쓰기, 다음 주에 편지지 읽 기시간가짐)	NIE, ppt, 교재, 편지지

◆ 추천도서

-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 되기, 케빈르먼 지음, 두란
- 다중지능 - 인간 지능의 새로운 이해, 문용린 역, 김영사
- 창가의 토토. 구로야나기테츠코. 프로메테우스 출판사
- 김동환의 다니엘 학습법.김동환.고즈윈

◆ 예화

신문자료에서 학업성취의 긍정적 모습 혹은 학업의 고통(조기유학, 자살, 입시고통) 때문에 드러난 기사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그 한 예다.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10대 한국 소년이 최근 실시된 미국대학입시학력고사(SAT)에서 만점을 맞았다. 더구나 이 결과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교민 뿐 아니라 국내 성도들 사이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 벤살렘고 11학년(고교 2학년)에 재학중인 지인환(16) 군이 정말 나오기 어렵다는 SAT 만점의 주인공이다. 지군은 소감을 묻는 주위 사람들에게 “앞으로 신앙이 좋은 의사가 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 군은 서울 동소문동 삼선감리교회 지성래 목사의 차남이다. 지 목사는 “특별히 인환이에게 공부를 강요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교회봉사활동,기도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쌓은 신앙의 힘이 공부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중략-

지군은 고교 2학년 때부터 시험볼 자격이 주어지는 SAT에서 영어 수학 두 과목을 800점씩 1600점 만점을 맞았다. 성격이 좋아 주위에 친구가 많은 지군은 학교에서도 줄곧 전교 1·2등을 놓치지 않았고 특히 중학교 때는 미국 전국학생시선험회가 주최한 시쓰기 대회에서도 ‘Life’란 제목의 시가 뽑혀 시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반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육상부에서 활동하는 지 군은 매주 금요일 집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4시간씩 2년째 병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

다. 또 교회에서는 형 영환 군과 함께 찬양단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주일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적극적인 봉사 생활을 하고 있다. 지 목사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 혹시 우리말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토요일마다 한글학교에 나가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경공부를 통해 철저한 신앙수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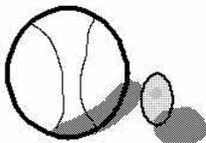
국민일보 2003년 6월 30일자 , 노희경 기자

TIP 다중지능이론

하버드대학의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 지능론 (Multiple Intelligences Theory) 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음악적 지능(musical intelligence), 신체-운동적 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논리-수학적 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언어적 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공간적 지능(spatial intelligence), 대인관계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그리고, 자기이해 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연탐구 지능(naturalist intelligence), 최근에 실존적 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의 지능은 다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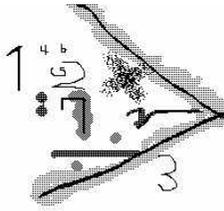


첫째, 음악적 지능이란 음악적 표현 형식을 지각하고, 변별하고, 변형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음악적 능력은 뇌에서 특별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우측 뇌의 신경조직에 존재하고 있다. 우측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 중 음악적 감수성이 둔화되고 음치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증명되었다. 음악적 지능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바이올리니스트 야유디 뮌하인(Yehudi Menuhin)이다. 그는 세살 때, 그의 부모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케스트라 음악회에 참석하고, 루이 피싱어로 부터 사사를 받아 열 살 되던 해에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었다. 이 음악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소리, 리듬, 진동과 같은 음의 세계에 민감하고,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언어적인 형태의 소리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소리에도 예민하다. 예를 들어,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누가 오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사람은 음악적 지능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신체-운동적 지능이란 자신의 모든 신체를 이용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과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사물을 만들거나 변형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감정을 표현하고(무용에서처럼), 게임을 하며(운동시합),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기(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신체 활동의 인지적 능력을 포함하는 증거라고 하였다. 신체-운동학적 지능은 우리 뇌의 대뇌피질에 위치하여 있고, 이 기능은 뇌의 손상을 통해 마비될 수도 있다. 이 지능의 대표적 예로서 베이브 룯(Babe Ruth)은 15세 때 야구에서 3루수를 하고 있었는데 동료 투수가 잘 못 던진다고 비난해서 본인이 투수요청을 받고 투수를 하여 이후에 유명한 메이저리그 투수가 되었다.

신체-운동학적 지능은 사람마다 자신의 운동, 균형, 민첩성, 태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본다. 농구선수 허재, 야구 선수 박찬호, 축구선수 황선홍 등과 같은 유명 운동선수들은 신체-운동적 지능에 강하고, 이러한 유명 운동선수들의 지능은 선수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나타났다고 가르너는 주장한다. 유명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반사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고난 감각을 가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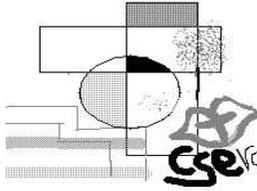
셋째, 논리-수학적 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은 기존 지능의 핵심으로 간주되어왔고, 유럽 학자들은 인지적 능력으로서 가장 중요시하였다. 논리-수리적 지능은 전통적 지능 개념의 핵심에 서있는 기능으로 다중지능 이론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는 지능이다. 이 지능은 논리적 문제나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정신적 과정에 관한 능력으로 추론과 체계적 사고를 주도하는 능력이다. 논리-수리적 지능은 두뇌의 특정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백치아가 모든 다른 능력이 모자라고 계산을 뛰어나게 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예를 들면 레인맨) 이것은 그에게 수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뇌는 손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수학적 지능이 뇌의 어느 특수한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지능을 가진 대표적 예로 가르너는 바바라 맥클린톡(Babara McClintock)을 들고 있다. 그녀는 미생물학에 끼친 공로로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그녀가 가진 연역적 사고와 관찰력은 소위 ‘과학적 사고’인 논리-수학적 지능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넷째, 언어적 지능(Linguistic Intelligence)은 단어의 소리, 리듬, 의미에 대한 감수성이나 언어의 다른 기능에 대한 민감성 등과 관련된 능력이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언어와 두뇌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어떤 사람의 두뇌에 브로카의 영역(Broca's Area)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손상되면, 비록 그 사람의 단어나 문장 인식의 능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르너는 유아나 청각 장애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언어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토론 학습 시간에 두각을 나타내며, 유머나 말 잇기 게임, 낱말 맞추기 등을 잘한다. 다양한 단어를 잘 활용하여 말을 잘하는 달변가가 많으며, 똑 같은 글을 써도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웃음을 자아내게도 한다. 이 지능의 대표적인 예는 T.S.엘리엇으로 10세에 잡지를 만들었고, 시와 기행문, 담화 와 콩뜨, 시 사비평을 담았는데, 이는 시인의 소질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공간적 지능(Spatial Intelligence)이란 시각적·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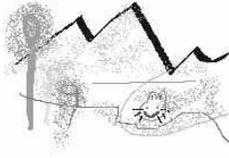
하는 능력과 그런 지각을 통해 형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한다. 시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지능과 건축가, 미술가, 발명가 등과 같이 3차원의 세계를 잘 변형시키는 지능으로 색깔, 선, 모양, 형태, 공간, 그리고 이런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있다. 신경과학에 의하면, 왼쪽 두뇌가 언어능력을 관장하는 반면 오른쪽 두뇌가 공간적 능력을 관장한다. 공간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잘 찾아내며, 처음 방문한 곳도 다시 찾아가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찾아간다. 또, 시공간적 아이디어들을 도표, 지도, 그림 등으로 잘 나타내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을 좋아한다. 예로서 나디아(자폐아인데도 놀라운 그림을 그림)를 들고 있다.



여섯째, 대인관계지능(Interspersonal Intelligence)이란 타인의 기분, 의도, 동기, 감정을 지각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교우 등에서 중앙에 위치한다. 유능한 정치인, 지도자, 또는 성직자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다. 앤설리반은 시각과 청각이 마비된 7세의 헬렌켈러를 교육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어려운 일은 그녀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통제를 하고 훈련을 시키는 일이다.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결국은 자신을 이해하리라고 회상했다. 좀 더 높은 수준에 가면 이 지능은 타인이 감추고 있는 욕망이나 의도까지 읽어내는 것이다. 대인관계 지능에 전업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대인관계 지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생물학적인 증거가 있다. 첫째는, 엄마와 친밀한 접촉이다. 둘째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짐으로써 상대적인 중요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일곱째, 자기이해 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지식과 그에 기초하여 잘 행동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버지니아 울프는 인생의 일상적 경험을 존재의 숨털이라 묘사했다. 뚜렷이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세 가지 있다고 했다. 동생과 싸웠던 기억, 정원에서 보았던 꽃과 옛날에 알았던 사람의 자살이 그것이다. 개인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분명한 자신만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 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그것을 알아내고자 할 때는 그 매개체로써 좀 더 표현적인 지능, 즉 언어, 음악 등을 필요로 한다.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은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등과 같은 자기 존재에 대해 이해함이 높다. 하지만, 자기이해 기능이 낮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처럼) 자신을 주변환경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덟째, 자연탐구 지능(Naturalist Intelligence)은 다중지능 이론의 목록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것으로, 자연 현상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말한다. 다중지능 이론의 목록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것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인지하고, 분류해 내는 자연연구 능력을 말한다. 원시사회에서는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를 그들의 자연탐구 지능에 의존하여 알아냈다. 임상 및 실험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뇌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무생물을 대상으로는 인지와 명명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는 판별능력을 잃은 경우가 있고 정반대의 문제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정확히 신경계의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자연지능이 다른 동물들의 자연지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뇌의 어떤 부분이 자연의 생물을 대상으로 한 지각에 중요한가를 확인하는 것도 곧 가능할 것이다. 동식물학자, 사냥꾼, 농부, 자연치유자 등의 사람들에게서 이 지능의 탁월성이 나타난다.

MEMO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유경상(CTC 대표), ctc2007@hanmail.net

‘입사기’와 기독교세계관

입사기(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의 출범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팽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성과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이상 입시 사교육문제는 교육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신앙의 영역과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이 활성화되어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믿음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갈등도 느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앙 따로 삶 따로’라는 이분화된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이 세상을 사실과 가치로 나누어 보게 한다. 중립적이며 편견이 없는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 가치는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 정치, 경제, 문화 등 공적인 분야에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있어 기독교는 프란시스 쉼퍼의 말을 빌리자면 작은 진리들(truths)일 뿐이지 총체적 진리(Truth)가 아니다.

위와 같이 입시 사교육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찾았다면 그 대안은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성경적 사고를 회복하는 것이다.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성경적인 관점이 존재

한다는 확신을 갖고 그러한 생각을 삶 속에 적용해 가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잠 1:7)라는 말씀에 기초한 생각이다.

입시 사교육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른 빙산에 비유하자면 그 수면 아래에는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삶이라는 거대한 빙하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입시 사교육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성과 책임은 이분화된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신앙과 삶의 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적이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방향

필자는 2004년부터는 기독교세계관 강의 사역을 해 오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목회자, 선교단체 간사, 선교사들과도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공감할 수 있었다. 한편 최근 몇 년 간 ‘복음과 상황’에 연재된 글들과 포럼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세운동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소리들이 이어져 왔다. 그 논쟁의 핵심에도 기독교세계관의 실천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라고 할 때 ‘삶의 체계’(life system)는 곧 세계관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한다. 이것은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목적이며 다름 아닌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육만이 아닌 지키게 하는 교육까지 나아가야 한다. “가르쳐...”는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며, “...지키게 하라”는 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행함으로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기독교세계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 읽거

나 강의를 통해 접하게 된 경우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과 직업 속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막연해 한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책과 강의 등을 통해 기독교세계관의 의미와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모델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세계관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WHAT) 혹은 “왜 중요한가?”(WHY)에 대해 집중했을 뿐 “어떻게 가르치고 적용하도록 할 것인가?”(HOW)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음악이론만 공부하고 피아노 연주는 전혀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독교세계관 교육은 'HOW'에 대한 연구와 적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기독교 세계관의 이론적인 측면을 등한시 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론적 배경 없이도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음악에 대한 지식은 피아노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세계관 교육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적용, 적용을 지향하는 이해’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 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세계관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해하도록 하고 또한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두 과제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첫 번째 과제는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과제이다. 아직도 기독교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학자가 아니라도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독교세계관은 “노동자나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김용주, <복음과 상황>, 2007년 6월, 169.). 지금까지의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책들과 글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생소한 학문적 용어들을 읽어나갈 때 그것이 학자들의 전유물 마냥 여겨지기도 한다. 사실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기독교 세계관 책들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기독교세계관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대상에 맞게 친숙한 용어로 바꾸어 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칠 때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생각’으로, ‘기독교세계관’은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기’로 바꾸어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세계관과 생각의 정의는 엄밀하게 따져볼 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친숙하게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면 그들에게 친숙한 단어인 ‘생각’을 통해 세계관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다.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두 번째 방향은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방법 및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법적 사고와 삶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을 현실의 삶과 접목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세계관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Felt Needs)를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학교 교사의 현실문제 중의 하나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일 것이다. 크리스천 부모로서의 실질적인 문제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일 것이다.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필요는 공부, 술, 담배, 인터넷, 게임, 친구관계 등의 문제들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현실의 문제와 실질적인 필요는 사람들마다 다르며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기독교

교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질 때 이해를 넘어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 보면 기독교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둘 다를 고려하는 기독교세계관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쉽게 전달하는 것과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크리스천 싱킹 센터(Christian Thinking Center, 이하 CTC)를 운영하고 있다. CTC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세계관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낸시 피어시는 그녀의 책 “완전한 진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부모, 목회자, 교사, 청소년부 지도자로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강력한 문화적 역류에 휩쓸려 가는 모습을 줄곧 목격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 다만 “가슴의” 신앙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매력적이고도 위험한 사상의 유혹에 대처할 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신자들에게는 “머리의” 신앙-세계관과 변증의 훈련- 또한 필요한데, 이는 그들이 가정을 떠날 때 접하게 될 다양한 세계관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준비시켜 주기 위함이다. 그들이 일찍 경고를 받아 미리 무장을 할 경우, 나중에 동료 학생들이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소수파에 속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적어도 싸울 기회라도 얻게 될 것이다. 청소년에게 기독교적 지성을 개발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에 필요한 필수 장비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대학은 인생의 전부인 것 같다. 요즘은 초등학교생들도 이 대세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학교, 학원, 집을 오가면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그로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청소년기는 또한 자아정체성이 성립되

어 가는 시기이다. 이에 대한 성장통으로 인해 내적인 불안정성과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청소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더 방황하고 좌절할 때도 많다.

그들에게 잠시 동안이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해 주는 것은 미디어로 대표되는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청소년들이 대중문화를 즐기지만 그 배후에 유혹의 손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쉽게 눈치 채지 못한다. 퀸틴 슐츠는 기독교세계관에 도전하는 미디어 시대의 네 가지 우상을 지적했다. 미디어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 물질을 이상화하도록 한다(소비주의). 미디어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온데간데없다. 하나님과 무관한 선과 악의 개념만 있을 뿐이다(세속적 죄 개념). 미디어는 우리의 이기심을 자극해 개인의 즐거움과 자신의 자유의 길을 가라고 호소한다(개인주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미디어들은 인간의 육체를 우리 시대의 이상으로 만들고 있다(외모 지상주의). 우리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분별없이 노출될수록 위의 네 가지 우상이 그들의 세계관 정립에 영향을 준다.

그들 대부분은 또한 공립학교를 다닌다.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공립학교들에서 배우는 지식은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의 생성과 발달을 설명하는 진화론에 기초한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과학과 기술을 통해 인간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의 시대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했던 모더니즘 시대를 넘어 절대적 진리의 존재는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이다. 서로의 다른 관점만 있을 뿐 모든 지식은 상대적이다.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를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개인의 판단일 뿐이다. 따라서 다른 중

교들 역시 기독교만큼이나 옳다(종교 다원주의). 이러한 맥락 가운데 서구의 세속주의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힌두교와 불교와 같은 동양의 종교와 영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사상이 서구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뉴에이지).

이러한 시대정신은 가치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예로 동성애는 더 이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미덕인 관용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인정되어야 할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일 뿐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이미 대중문화와 교육 가운데 이미 이러한 생각들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들이 앞으로 캠퍼스와 세상 가운데서 설 때 위와 같이 매력적인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사상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의 여러 통계 자료들을 보면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기독교인 숫자만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교회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낸시 피어시의 지적처럼 지금의 교회 교육은 ‘가슴의 신앙’에만 초점을 맞추어진 것 같다. 때로는 기뻐 뛰며 찬양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열정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하지만 ‘가슴의 신앙’만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세계관적 도전들에 대응할 수 없다. 그들에게 가슴의 신앙이라는 바탕 위에 ‘머리의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만 그러한 사상적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머리의 신앙’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세계관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하는 일도 포함된다. 그것은 또한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문화를 변혁하고자 하는 꿈을 꾸며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슴의 신앙 위에 위와 같은 머리의 신앙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꿈꾸는 CTC(크리스천 싱킹 센터) 소개

CTC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CTC는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대표 단체인 DEW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의 협력기관이다.

* CTC의 사명 및 비전

CTC의 사명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함으로써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제자(TD: Thinking Disciple)로 준비되도록 돕는 것이다.

기독교세계관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일은 준비된 교사양성과 교재 개발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독교세계관의 이해와 적용을 돕는 생각 코치(TC : Think Coach) 양성과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세계관 교재 개발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CTC의 사역 목적이자 동시에 교육 커리큘럼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목적과 청소년들의 상황을 고려해 정리한 것이다.

* CTC 사역 목적 및 커리큘럼

1.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기(Worldview)
 -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제자임을 인식하며 살도록 돕는다.
2. 신앙과 삶을 연결하기(Spirituality)
 -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겪고 있는 일상의 문제들(학문의 영역 포함)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도록 돕는다.
3. 기독교세계관으로 문화보기(Culture)

-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시대정신과 문화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며 문화를 변혁하도록 돕는다.

4. 소명을 발견하고 준비하기(Calling)

-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5.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기(Leadership)

- 기독교세계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섬기는 제자로 살도록 돕는다.

*** CTC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 CTC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CTC 교육 프로그램이 위에서 언급했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목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고려하고 있다.

1. 평이성

-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스토리, 그림 예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 교육하고 있다.

2. 현장성

- 기독교 세계관을 현장의 문제와 연결시키기 위해 대상별 관심 이슈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은 ‘부모님 잔소리, 게임, 친구 관계’ 등, 청소년들은 ‘공부, 술, 담배, 게임, 이성교제, 성형수술, 야동’ 등, 부모님들은 ‘자주 화를 내는 부모, 자녀와의 의사소통, 형제간의 다툼’ 등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3. 자발성

- 강사 중심이 아닌 참가자 중심의 세미나가 되기 위해 생각 정리(TAP, 성경적 TAP), 토론, 다양한 재능을 통한 생각 발표회, UCC 제작 등 다양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CTC 생각 캠프 및 세미나 주요 내용

청소년 생각 캠프와 부모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것이다. CTC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한 특징은 이해와 실천을 돕는 도구(tool)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TAP과 성경적 TAP이라고 부른다.

TAP은 Think, Action, Product의 약자로서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결과를 거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을 도구로 활용해 생각과 삶을 점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T	A	P
Q. 담배를 피는 이유는 무엇인가?	흡연	Q. 담배를 계속 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New T	New A	New P
Q. 담배를 끊으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금연	Q. 담배를 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T	A	P	CTC
·흡연, 스트레스 완화, 심취해, 피로해 없애기,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담배값이 비싸다 ·물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자신의 건강 해롭다.	금연	·과연, 구강암, 식도암, 폐암 등 임종류. ·과다량 니코틴. ·간접적 피해 (간접흡연). ·담배 중독.	
NEW T	NEW A	NEW P	
·담배로 인한 고통 예방. ·고초의 방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금연	·담배로 인한 고통 예방. ·고초의 방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청소년 생각 캠프 중 TAP 활동의 예

성경적 TAP은 생각의 원리인 TAP을 기독교 세계관에 접목하여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생각인 창조, 타락, 구속을 TAP과 접목하여 이슈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을 도구로 활용해 신앙과 삶을 이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다.

T(God)	T(Sin)	T(Jesus)
Q. 하나님은 오직何を 만드셨을까?	Q. 오락(게임)에 대해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은 무엇일까?	Q. 게임과 관련한 본체 불순종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Action	Product	Prayer
Q. 그 해결책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Q. 이러한 삶을 싫어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 하나님, 이웃, 세상	Q.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BIBLE TAP - GAME 3주		
God 하나님은 오직 무엇을 만드셨을까? 1. 게임을 즐기 위해서. 2. 회복, 단합을 위해서. 3. 심을 받기 위해서.	Sin 오직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을 불순종하셨을까? 1. 내기를 한다. 2. 경쟁을 통해 깨어 준다. 3. 좋지 못한 게임이 등장. 4. 중독성. 5. 타락.	Jesus 게임과 관련한 본체 불순종에 관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1. 사랑을 회복 받으려 한다. 2. 내기 하지 않는다. 3. 약하게 보다 즐긴다. 4. 죄선을 다 따른다. 5. 좋은 게임 방법 개발한다.
Action 그 해결책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1. 시간을 잘 지킨다. 2. 죄선을 다 따고 즐긴다. 3. 좋은 오락을 권유 한다. 4. 좋지 않은 오락은 지운다.	Product 이러한 삶을 싫어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1.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2. 나도 행복해진다. 3. 신앙생활이 쉬워진다. 4. 관계성이 좋아진다.	Prayer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2. 오락에 몰입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린이 생각 캠프 중 성경적 TAP 활동의 예

어린이 및 청소년 생각 캠프 후 받는 평가서를 보면 “생각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좋았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피드백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는 캠프 후에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TAP과 성경적 TAP을 활용하게 하느냐이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방학 때는 교회 수련회와 연계해서 학생들을 위한 생각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부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한 부모들에게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연장선으로 TAP과 성경적 TAP을 가정에서 특히 가족회의와 가정예배에 활용해 보도록 제안하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생각 캠프 교육과정

- 기간 : 총 14시간(1박 2일 or 4주 4회)
- 대상 : 약 20명(초등 4-6학년 or 청소년)
- 프로그램 내용 :

생각과 삶의 변화를 위한 생각의 법칙 TAP	신앙과 삶을 이어주는 BIBLE TAP
<p>* 오프닝(1h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 열기, 프로그램 소개 	<p>* BIBLE TAP(3h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천 싱킹의 중요성 - 크리스천 싱킹의 세 가지 원리 - 크리스천 싱킹으로 세상 보기 - 크리스천 싱킹 라이프 플랜
<p>* 생각의 법칙 TAP(3h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의 중요성 - 생각의 세 가지 원리 - 자신의 생각 들여다보기 - 자신의 생각 새롭게 하기 	<p>* Let's BIBLE TAP(3h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별 토론 <p> BIBLE TAP 콘테스트 : UCC 제작</p>
<p>* Let's TAP(3h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별 토론 <p> TAP 콘테스트 : 노래, 스킷 드라마, 그림, 시 등으로 표현하기</p>	<p>* 클로징(1h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하기, Action Plan 짜기, 소감 나누기

- 참가자들의 소감 :

"다른 수련회처럼 뻑뻑하게 앉아서 지루한 강의를 듣는 것보다 유경상 강사님의 강의는 편안하면서도 컴퓨터 영상을 보며 재미있게 즐거우면서 함께 참여도 하고 토론해 가는 것이 이번 캠프에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다."(고2 참가자)

"생각의 힘과 TAP 법칙을 배웠는데 가장 큰 소득은 꿈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진 것이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CTC는 마른 땅에 단비와 같이 큰 기쁨을 주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대입준비생 참가자)

"사실은 생각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 '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 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조금씩 이해가 되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크리스천으로 생각하는 것을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도움이 되는 그런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중3 참가자)

부모 생각 세미나

- 기간 : 총 6시간(1박 2일 or 2주 2회)
- 대상 : 약 16명(크리스천 학부모)
- 프로그램 내용 :

생각과 삶의 변화를 위한 생각의 법칙 TAP(3hr)	신앙과 삶을 이어주는 BIBLE TAP(3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생각하는 아이로 키워야 하나? - 생각의 세 가지 원리 - 자녀의 생각 점검하기 - 자녀의 생각 새롭게 하기 ☞ TAP으로 <u>가족회의</u>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생각하는 제자로 키워야 하나? - 크리스천 싱킹의 세 가지 원리 - 크리스천 싱킹으로 자녀 바라보기 - 크리스천 싱킹으로 생각하는 아이 키우기 ☞ BIBLE TAP으로 <u>가정예배</u> 드리기

- 참가자들의 소감 :

부모로서 나의 생각이 있듯이 아이들도 자신만의 생각의 틀이 있다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아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판단하기에 앞서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분당 세미나 참가자)

세미나에서 배운 '생각의 법칙'을 집에 돌아가 적용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아이들의 생각을 읽어 주려고 노력하기보다 거의 일방적인 대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순종을 강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의 법칙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빠도 함께 참여하면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분당 세미나 참가자)

“하나님을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삶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실제적인 예(분노)와 말씀의 접목(기독교 세계관)으로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었다.”(과주 세미나 참가자)

“자녀가 바뀌기 원한다면 부모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가 변화되기까지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확실한 동기부여 시간이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과주 세미나 참가자)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주말기독교세계관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최근 ‘주말교회기독교학교’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주말교회기독교학교는 예배와 성경공부 중심의 교회학교인 주일학교와는 다른 형태로써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여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교회가 학교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말을 이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주말교회기독교학교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주말교회기독교학교는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주일학교와는 다르며, 반대로 단순히 학업을 보충시켜주는 활동도 아니다. 그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사고와 삶에서 벗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이다.

이러한 면에서 주말교회기독교학교는 교회 학생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교회가 주체가 되지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 학생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위해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함께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말기독교세계관학교’가 필요하다.

주말기독교세계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 기간** : 3년 과정 총 6학기(여름 : 3-6월, 겨울 : 9-12월), 매주 토요일 2:30-5:30
- **참가 대상** : 초(4-6), 중, 고 학생
- **교육 방법** : 강의, 발표회, 토론, 그룹 활동, UCC, 독서, 미디어, 리서치, 세계관 자료 등을 활용
- **교육 과정** :

	교육 목적	교육 내용
1학기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기	1. 생각의 법칙 TAP & 성경적 TAP 2. 기독교 세계관 3. 성경 안의 세계관
2학기	신앙과 삶을 연결하기	1. 24시 그리스도인 (구원, 전도, 선교, 영성, 교회) 2. 그리스도인의 생활습관 3. 그리스도인의 성품
3학기	기독교세계관으로 문화보기	1. 세계사 안의 세계관 2. 기독교 문화관 3. 포스트모더니즘 & 뉴에이지 4. 한국인의 세계관
4학기	기독교세계관으로 공부하기	1. 그리스도인답게 공부하기 2. 인문영역 - 문학, 예술, 경제, 사회, 가정 등 3. 자연영역 - 과학과 기술, 환경, 창조와 진화
5학기	소명을 발견하고 준비하기	1. 그리스도인의 소명 2.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3. 체험! 직업 현장! 4. 크리스천 리더십
6학기	실습 및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및 수료식 -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자신의 은사로 표현
방학 활동	* 학생들을 위한 세계관 여행 * 교사 연수 * 가족 캠프	

주말기독교세계관학교를 교회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야
것들이 많다. 우선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독교세계관교육의 필요성과 시급
성을 공감하며, 교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인적 &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준비된 교사들도 필요하다. 위와 같은 교육과정을 수행할 교사들로 준비되
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비전을 가
진 자들을 선발하여 집중적인 훈련기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의 인
식 또한 필요하다. 자녀들을 주말기독교세계관학교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
정의 교사로서 부모도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따라
서 위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부모 교육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말기독교세계관학교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교육의 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와 세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이 잘 수행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말기독교세계관학교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표는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제자(TD: Thinking Disciple)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CTC 대표 소개

유경상 대표는 대학시절, 신앙과 삶이 분리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해 신앙을 포기하려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그러던 중 기독교세계관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신앙과 삶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그의 남다른 열정을 낳았으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현재 기독교 세계관이 왜 중요한가(Why)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How)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차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세계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되도록 돕는 비전을 가지고 **CTC 크리스천 싱킹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 이력

- 경북대 철학과 졸, IVF 학사
-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of Trinity Western Univ.) 졸업, 설립 준비 간사
- 전 DEW 기독학술교육동역회 대표 간사
- 현 CTC(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
- 현 샘물학교 연구 간사, DEW 세계관 전문위원, 남북중앙교회 교육전도사

□ 사역 활동

- CTC 사역 : 어린이, 청소년, 청년 생각 캠프/ 학부모, 교사 생각 세미나/기독교세계관 교재개발 사역 중
- 강의 사역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명지대, 총신대 평생교육원, 샘물기독교초등학교 학부모 세미나, IVF, YWAM 킹스키즈, 십대지기 등 대학교, 교회, 선교단체에서 기독교세계관 관련 강의 중

□ 강의 주제 영역

- 세계관 : 생각의 법칙 TAP, 크리스천 싱킹(성경적 TAP)
- 문화/변증 : 포스트모더니즘 싱킹, 뉴에이지 싱킹,
- 영성/소명 : 기독교 세계관과 선교, 24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소명의 파도타기
- 이슈 : 다윈이 만든 세상(진화론 세계관과 문화),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동성애, UFO, 환생 등

교회 방과 후 학교, 주말학교, 대안학교 운영 모델

-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소중화 대표 (트리니티 스쿨, 비전중학교 교사)

학교에서 배우는 세속적 가치들

얼마 전 텔레비전 좌담회에서 10대 학생들과 미국 성인 잡지 Forum사의 편집인의 좌담회가 있었다. 좌담회에 참가한 대부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다. 좌담회가 시작되자 편집자는 학생들에게서 오늘 토론회의 바탕이 되는 기본 원칙 즉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자신들의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치권이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겠느냐고 물었다. 얼마간 생각을 한 후 모든 학생들은 이 개념에 전폭 동의했고 토론은 진행되었다. 편집자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여성 동반자와 소위 “자유 결혼”이라는 형태로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다. 즉 그들은 서로 함께 살되 어떠한 공적인 결혼의 의무로 상대방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동의했다는 것이다. 편집자와 그의 동반자는 서로 사랑하며, 지금의 관계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녀를 낳지 않았고, 만약 누구라도 지금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면 곧 갈라서서 어떠한 법적 조치나 다른 분쟁 없이 서로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이다. 곧 몇몇 젊은 청년들이 편집자에게 결혼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편집자는 그들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 좌담회 초반에 그들 모두가 동의했던 전제, 즉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는 한 사람들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 기독교 청년들은 “자유 결혼”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을 부각시키려 노력했지만, 그 말씀들이 에당초 자신들이 동의한 전제들에 위배되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딜레마는 너무 분명했고, 지켜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현실의 삶을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들은 혼돈되고 또 무력했다. 학교는 단순히 “사실” 들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이 이해되는 삶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과 태도를 가르치는 곳이다. 그렇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가 뇌 속에 저장되는 것은 아니다.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학생들은 제공받으며, 의도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수받는 것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학생들의 시간 대부분이 가정과 학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모와 교사에 의한 영향은 말할 나위 없이 상당하다. 비록 공교육의 기독교사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교육 제도는 인본주의적 의도와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다. (애들린, 기독교 교육의 기초, pp.24-27).

애들린의 예화에 의하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이 편집자와의 토론에서 겪는 고충의 원인은 학생들이 처음에 인정한 편집자의 전제 때문이다 :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자신들의 원하는 무엇이든 지 다 할 수 있는 자치권이 있다.” 사람의 신념에 있는 전제는 삶의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된다. 편집자의 전제에 의하면, 자유결혼은 개인의 권리이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학생들이 편집자의 전제를 동의한 것은 그의 자유결혼에 대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동의하게 된다. 토론에 참가한 학생들은 인간의 신념에 포함된 가치가 어떤 삶의 양식을 결정할 수 있는지,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별하지 못했다. 지식은 객관적, 중립적, 탈가치적(value-free)이지 않다. 그 안에는 세계관, 철학, 종교 등 개인의 암묵적 신념이 포함된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 제시된 지식을 배우면서 그 안에 포함된 세속적 가치를 배운다. 세속적 가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한 총체적 접근과 태도에 영향을 주며 성경적 삶의 체계와 갈등을 일으킨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판단할 수 있는 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엿본 중학생들의 사고

중학교 2학년 학생 188명을 대상으로 중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중 혼전동거, 동성애, 생명복제, 낙태, 공부의 목적에 대한 그리스도인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혼전동거에 대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괜찮다」, 「부모님이 허락하면 괜찮다」,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면 괜찮다」 (86.8%)
- ◆ 동성애에 대해
「인간의 권리이다.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나는 동성애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구태여 반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81.8%)
- ◆ 생명복제에 대해
「비록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인간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과학 기술로 환영할 만하다」 (78.8%)
- ◆ 낙태에 대해
「임신한 사람의 권한이다」,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 (31.3%)
- ◆ 공부의 목적
「우리 사회는 고학력, 명문대학 졸업생이 성공하기 쉽기 때문에」. 「잘 모른다. 단지 부모님과 선생님의 요구 때문이다」, 「내 자존감과 관계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 중 하나이다.」 (66.7%)

우리 자녀들은 세속적 가치와 사상에 노출되어 있다. 다원화된 세상에서 가치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그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도덕적 덕목에 속한다. 너도 옳고 나도 옳은 의견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사람은 의사소통할 수 없는 고지식한 사람이다.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자. 몇 개의 문항과 단순한 예시로 학생들의 가치관을 판단하는 것이 무리지만 어느 정도 그들의 신념을 읽어낼 수 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너그럽다(?). 성경적 윤리보다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한다. 공부는 삶의 성공 내지 자신이 인정받는 과정이다. 학생 문화, 대중문화, TV, 영화,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과 가치들에 의해 영향 받고 있다.

사교육을 통해 본 부모들의 교육관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매년 규모가 증가하며 2003년 기준 GDP대비 약 2.3%에 달하는 규모로 유아와 고등교육 분야를 합한 사교육시장의 규모는 약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¹¹⁾ 학교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원인과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다. 과외교습대책위원회(2000)에서는 ‘열악한 공교육’, ‘학부모학생의 심리적 요인’, 지나친 경쟁 지향적 사회문화구조, 서열화 된 대학구조와 일류대 위주 진학 풍토, 학벌위주의 고용 관행 등 ‘사회구조적 문제’,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상황’이 과외 수요를 발생시키는 변인으로 보았다. 이종재·최상근·김현진 외(2003)는 사교육비가 발생하는 원인 구조를 ‘학벌주의와 학력주의의 한국 사회 경쟁구조’, ‘왜곡된 교육경쟁구조와 대학입학전형제도’, ‘학교교육의 내용, 수준, 정도가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 측면‘, 불안 심리와 과외를 맹신하는 ’학부모 측면‘, 그리고 ’사교육 기관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성일 외(2003)는 공교육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교육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으며 과외교습의 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¹²⁾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이종재)이 2003년 8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제 20차 교육정책포럼 “한국 학부모 교육열의 재조명: 교육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에 포함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인식상으로는 인간성 교육을 학교교육보다 우위에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성적 올리기에만 관심이 크다. 또한 자녀를 대학에 못 보낸 것을 자녀 교육 실패로 여기기도 한다.

11) 유한구, 사교육비 지출 구조의 분석, 직업과 인력개발 2006 여름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12) 김현진,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2004, Vol. 22, No. 1 pp. 27-45

1. 교육 위기의 정체

무엇이 교육의 위기인가? 교육 위기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교육제도, 입시제도, 사교육 문제 해결, 학벌사회의 철폐 등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상 안의 한정된 지위와 명예, 부를 위한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교육문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유교적 정서와 체면문화, 학력과 사회적 명예와 부의 상관관계 등 복잡한 요인들이 교육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인류학자 포스터(Foster)에 의해 제기된 한정적 재화 이미지¹³⁾를 제도의 개선에 의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의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의한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과 교수 Diane Rabitch는 교사들의 교수법 훈련 등 노력, 정부의 학교 지원, 공평한 교육 기회,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대학에 입학하는 것 등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현재의 많은 불평등은 과거 어렵게 성취한 개혁들의 역작용이고 교육위기는 내적혼란과 목표 상실이라고 주장한다¹⁴⁾. 닐 포스트먼은 “학교가 제대로 그 의미를 찾으려면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이 믿고 따를만한 신(god)의 존재가 필요하다. 인간에게 섬길 신이 없다면 삶의 이유가 불분명해지고 도덕이 무너진다. 어떤 교리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고 말하며 교육의 위기는 사회전체가 공유하는 교리의 부재라고 주장한다.¹⁵⁾ 교육을 정부가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만 접근하는 것,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위한 수단

13)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예컨대 토지, 경제적 부, 우정, 사랑, 명예, 존경, 지위, 권력 등 누구나 갖고 싶은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고방식

14) John Bolt, The Christian story and the Christian school,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1993, pp.20-21

15) 닐 포스트먼, 교육의 종말: 무너지는 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 문예출판사, 1999, p.20. 포스트먼은 교육을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한 잘못이 학교 교육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학교가 경제적 가치, 상업주의 이데올로기, 테크놀로지의 무비판적인 교육에의 적용, 각 집단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분리주의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지향해야 할 목적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간성 교육, 절대진리의 맹목적 추구보다 지식의 상대성과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지식관 교육, 다양한 집단간의 논쟁을 중요시하는 교육, 다양한 문화들의 비판적 학습을 통해 상호공존의 지혜를 길러주는 교육, 소통 가능한 인간성 창출을 위한 언어교육이다. 나는 포스트먼의 관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교의 목적이 잘못되면 교육의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는 그의 지적에 동의한다.

으로 접근하는 것은 교육 문제의 핵심을 건너뛰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도 미래에 새로운 교육문제가 나올 것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교육의 위기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해 살도록 구비시키지 않음에 기인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앎과 행동으로 체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기초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어디서나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비전, 교육과정에서 성경적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안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6:4~9).

2.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과제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무신론에 기초한 지식 체계를 배우며, 세속적 가치와 사상이 포함된 대중문화를 접하고 부모들은 잘못된 교육관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a way of life)을 배울 것인가?

성경적 가치가 외면된 교육에 위기를 느낀 그리스도인 교육 공동체가 노력하고 있다. 교실에서 신앙과 학문이 통합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교사들, 직접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한 개인과 교회들, 홈스쿨링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중 일부가 기독교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아이들은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의 틈새를 메우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몫으로 남아있다.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자녀들이

배우는 교육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부모들의 교육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교육의 영역에서 회복되어야 한다. 브루멜른(1996)은 가장 좋은 교육의 형태는 가정과 교회, 학교가 각각의 영역에서 일관된 관점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라 말한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는, 이상적으로는 성령의 불꽃과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교육의 삼각 받침대를 구성한다. 세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아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함께 작용해야 한다. 만약 삼각 받침대 중 학교 “받침대”가 다른 기반 위에 서 있다면,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주변의 세속 세계에 반응하는 데 균형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동시에, 학교는 가정이나 교회를 대신할 수 없다. 특히 가정은 학교가 담당하는 공식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를 제공한다.¹⁶⁾

이것은 미국의 그랜드래피즈 등 특별한 몇 곳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의 현실에서, 학교가 가정이나 교회를 대신할 수도 있다. 최고의 방안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안일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문제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불우한 환경에서 맞벌이를 해도 힘든 경제 구조로 아파하는 이웃들은 또한 얼마나 많은가? 부모가 기독교인이 아닌 가정, 한 부모만 기독교인 가정 등 여러 형태의 가정들이 있으며 이들의 자녀들 역시 학교나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루멜른을 비롯한 북미와 호주의 기독교 교육가들이 말한 기독교학교는 언약의 자녀들을 받아들여 교육하는 곳이다. 필자는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기독교 학교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교육이 가정의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당수의 가정들을 위해 교회나 학교가 어느 정도 가정의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교육의 본질적 과제인 성경적 관점으로 배울 수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아니라면, 교회가 가정과 학교의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것도

16) 해로 반 브루멜른,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1996, IVP, p.18

좋겠다. 즉, 가정, 교회, 학교 중 한 기관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세 기관이 통합되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가장 적합한 곳은 교회이다. 교회는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자인 부모를 교육하기 가장 좋은 장소이다. 교회는 부모들을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다.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며 삶의 교제를 통해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¹⁷⁾ 교회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좋은 자녀교육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것에 성공하면 지금 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일학교 예배와 성경공부도 살아난다.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밝다. 주일에 예배에 불참하며 학원과 과외, 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또한 얼마나 많은가. 지금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앙교육의 위기가 곧 교회의 위기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가 단지 주일학교의 교육에 국한하여 성경공부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영역에 더 깊숙이 발을 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아는 것만 아니라 공부문화사회정치적 상황 등 삶의 영역에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교회들은 학교 설립을 힘써야 한다. 전일제 기독교 대안학교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학교 설립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교회들은 학교를 설립하여 가정과 교회, 학교가 하나의 받침대 위에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기타 교회들은 방과 후 학교, 주말 학교, 홈스쿨 및 빌리지 스쿨을 운영할 수 있다.

3. 대안적 모델: 트리니티 기독교학교¹⁸⁾

교회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회의 지역적, 문화적 상황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부록]에는 여러 유형의 교회학교들을 소개했다. 여기서는 필

17)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설립 하는 것에 있어 장·단점이 무엇인지는 장동민, 교회 기독교학교의 필요성과 의의, 2007기독교교육과 학교 컨퍼런스 자료집, 2007을 읽어보세 요.

18) 트리니티 기독교 학교를 '트리니티'로 부르겠습니다. 트리니티의 교육대상은 중학생입니다.

자가 주장한 '교육의 위기는 곧 성경적 가치의 부재' 라는 측면에서 평택시 소재 「남부전원교회 트리니티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과 운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3.1. 트리니티의 교육 특색: 성경적 관점(Biblical perspective)으로 가르치기

성경적 관점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메시지가 관점의 틀(framework)로 작용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주요 줄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회복이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창조),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와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한 불완전함과 왜곡을 인정하며(타락),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회복시키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자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구속)을 성경적 관점의 틀(framework)이라고 부른다. 이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인간의 삶과 창조세계의 모든 현상을 성경적 제반 원리에 기초하여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적 관점은 설교와 성경공부만으로 충분히 가르칠 수 없다. 트리니티는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경적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트리니티는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에게 성경적 관점을 갖도록 돕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 대중문화, 독서, 대중매체 등을 성경적 관점으로 재구성 및 재해석하여 가르친다. 이점은 기존의 교회 중 주말학교를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시간, 공부방 등 주말 프로그램으로 운영 하는 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트리니티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성경적 관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성경의 안목으로 걸러진 공부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한다. 현대는 진리와 가치가 다원화된 시대이며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전파되는 지식과 문화는 성경이 말하는 삶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원론적 사고도 경계한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큰 단점 중 하나는 이원론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교회와 세상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 일이며,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 교회에 자주 나와 봉사하는 것은 중요하며,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은 세속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들도 꽤 많다. 트리니티는 전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우리는 경건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죄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무엇을 변혁시킬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지 배우며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노력해야 한다. 트리니티의 교육과정은 자유롭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경적 관점에 기초하여 신앙과 일치되는 가르침을 지향한다.

3.2. 교육과정 소개

성경적 관점으로 가르치기 위해 지금까지 운영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 2004-2005년도

학년도	1학기	2학기
2004	Alta Vista 개인으로서 사람들	Alta Vista 개인으로서 사람들
2005	영어, 영화창작, 기술 중 선택1	국어, 사회, 과학, 경제, 기술·가정

- ◆ 2006년도

공교육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며 성경적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침.

트리니티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주제 통합형 교육과정은 재구성적으로 쓰인 알타비스타(Alta Vista)를 번역하고, 다시 교회 상황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이것은 교과목의 구분이 없으며 도여베르트의 15가지 양상 이론이 적용된 좋은 교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 통합교육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놓치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가르치는 내용보다 활동을,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것보다 지엽적인 점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이것이 주제통합교육의 약점이기도 하다. 어쨌든, 교사들은 고민하였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을

성경적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수업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교육과정을 변경하게 되었다. 우리의 교육 목적에 보다 적합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성경적 관점으로 비판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2005년 2학기부터 2006년에는 학교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를 편성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고,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교과를 선정하였다. 교사들의 가르침이 성경적 가르침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구한 것을 수업 전에 발표하고 약식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여 교사들에게 자신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브리핑하였다. 이 시간에 교사들은 발표 교사의 아이디어를 배우고, 또 평가하면서 더 나은 수업이 되도록 격려 한다. 수업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면서 신앙과 학문이 통합된 수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결과적으로 교사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진 셈이다. 교육과정이 변한 것은 대부분 공교육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설명하는 관점과 주말학교에서 설명하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보여주어 성경적 관점으로 교과서를 배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설교와 학교의 공부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 2007년-2008년 현재

학년도	1학기	2학기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씹쓸한 초코렛 ◆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 샬롯의 거미줄 ◆ 엄마가 사라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아이는 히르벨이었다 ◆ 까망머리 주디 ◆ 하늘나라 가게 ◆ 청소년을 위한 경제의 역사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을 흠친 빈센트 반 고흐 ◆ 상록수 ◆ 어린이를 위한 식물학 ◆ 사체를 죽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점점 좋아져 ◆ 손 안의 박물관 ◆ 클로디아의 비밀 ◆ 교과서를 만든 소설가들

※ 교육과정에서 한 권의 책으로 3주 동안 운영한다. 그 중 한 주는 부모들과 함께 책의 내용에 적합한 문학기행, 역사탐방, 자연관찰 수업, 곤충채집, 천렵, 미술작품전 감상, 음악회,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2007년에는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독서와 논술 열풍이 불었다. 교사들은 사회의 변화, 교회 및 트리니티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함을 인식했고, 논의를 통해 독서를 교육과정으로 정했다. 중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에게 논술을 강조하여 논리적 사고를 추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논술은 책을 많이 읽고 분석하고 토론과 발표를 통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학생들은 글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여러 장르의 책을 많이 읽고, 주어진 문제나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리니티가 독서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는 독서의 특성에 있다. 독서는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 사고 행위이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소통하는 행위이다. 학생은 독서를 하면서 글의 장르와 특성을 배운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작가의 의도, 주장을 배우면서 글을 읽는 법을 배운다. 독서는 성경적 지식과 글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보를 탐색하며 조직하기 적합하다. 또한 글의 의미를 성경적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학생은 독서를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고,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며, 인간의 삶과 문화의 다양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고 성경적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 2007학년도 1학기 독서 교육 안내

1. 주제(Topic): 나

2. 목적 진술(Statement of Purpose)

학생들로 하여금 선정된 책을 교재(material)로 하여 '나'를 살펴보고 성경적 관점으로 '나'를 알도록 도와준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친구, 신체적·정서적·문화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인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준비시킨다.

3. 신조(Rational)

성경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라고 선언한다(창 1:26).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학생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다양한 재능을 각자 가지고 있으며, 창조세계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행할 수 있는 독특한 가치를 부여받았다. 학생들이 성경적 관점에 의해 자아를 알게 되면 높은 자아인식을 가지며 동시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귀한 존재로 존중한다.

자아 인식은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생각, 태도, 가치, 신념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아 인식은 자신의 특성인 신체적 외모, 성격, (이)성, 행동 경향, 성격, 흥미, 친구 관계 등에 대한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은 죄인이며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학생들은 죄를 짓고,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오류로 점철된 왜곡된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게 되며, 올바른 자아인식을 할 수 없다.

학생들은 읽기, 쓰기, 토론 및 발표를 통해 책의 내용들을 자신의 문제와 삶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인간에 대한 관점을 기초하여 올바른 자아 인식(혹은 자아 이해, 자아 정체성, 자아상, 자아 등)을 하도록 격려 받는다.

4. 학습 목표(Learning Outcomes)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될 것을 기대한다.

- 4.1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 4.2 자신 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중한 자임을 깨닫는다.
- 4.3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도록 성경적 관점으로 인간, 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사고를 기른다.
- 4.4 정상적인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모두 귀하며, 각자에게 있는 재능으로 창조세계를 섬길 수 있음을 안다.
- 4.5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초로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며 좋은 관계를 맺는다.

5. 내용(Subject Content)

- 5.1 씹쓸한 초코렛 - 똥똥하지만 외모를 극복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
- 5.2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 재능 있는 위대한 장애인 이야기

5.3 샬롯의 거미줄- 친구와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

5.4 엄마가 사라졌다. - 가족간의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

3.3. 주말학교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교사 선발과 교사 기본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일에 헌신할 사람을 찾는다.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대안학교들 중 많은 비율은 교육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준비 기간이 별로 없이 학교를 설립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교회가 준비없이 급하게 주말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말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말학교의 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말학교를 할 필요에 대해 교회 공동체가, 특히 학부모들이 고민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안에서 헌신할 교사들이 모집되어야 한다. 모집된 교사들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멤버십을 형성하고 공부하면서 주말학교에 대한 비전이 공유된다. 트리니티의 경우 먼저 교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리니티가 설립될 때까지 약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그 동안 교사 자격 과정인 기본교육 5주(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교,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적 인식론, 기독교 교사)를 이수하고, 필독 도서를 공부하고 발표했다. 설립 즈음에는 교수법으로 협동학습을 익혔고, 학교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학교 정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충실히 준비했어도 막상 학교가 시작되면 정신없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새롭게 들어온 교사들의 경우는 6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기본교육, 수업참관, 수업에 필요한 지도안 작성법, 협동학습법을 교육받은 후 수업에 참여하였다.

둘째, 학부모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 설립을 충실히 준비해도 개교한 후 아이들은 천차만별이다. 주말학

교가 강제성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주말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힘을 합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주일 오후 설교 및 강사 초빙,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학교 설립 이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부모교육이 실패하여 부모로부터 도움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말학교의 교육이 많은 지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트리니티의 경우 학생들이 주말에 학원에 가야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에 보냈고, 일부 부모들은 학원을 포기시키고 트리니티에 보냈다. 부모들이 절대적으로 주말학교를 성원하고 자녀를 일단 보내주어야 한다. 학교에 오지 않으면 교사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교육적 효과를 얻기는 몹시 힘들다. 이것은 주일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다. 트리니티의 경우, 개교하기 전 1년 6개월 동안 교사 모집 및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후 찬양예배 때에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듣고 예배 후에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시각이 변화되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시각이 변하면서 부모들은 교육적 대안을 찾게 되었다. 주말학교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2007년에는 전 교회적인 교육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부모들은 주제 강의와 분과토의 시간, 전체 토론 시간을 통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 도전받고 격려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한 달에 3회 부모모임을 갖는다. 2번은 교재를 공부하고 토론하며 1번은 학생들과 함께 체험활동에 참여한다.

셋째, 교역자와 긴밀한 협조이다.

교회의 프로그램은 교역자의 비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담임목사의 적극적인 후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교역자들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영이 허술해진다. 교회에는 이미 주일학교와 성경공부 등 교육기관이 있다. 여러 교육기관들은 교회의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고, 교육기관별 행사 계획

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교역자들의 협조는 교회 공동체가 상처받지 않고 서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데 절대적이다. 트리니티의 경우 새로 부임하신 교역자들에게 주말학교의 시작과 현재, 비전과 교육적 특성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는다. 모임 후 저녁 식사 시간에는 선생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트리니티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묻고 답변을 들으며 주말학교에 대해 더 이해를 하게 된다.

넷째, 교회와의 관계 설정이다.

주말학교는 교회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주말학교의 관계는 교회 소속의 다른 교육기관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 주말학교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주말학교의 비전과 교육목적에 동의하는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교회 소속의 한 교육기관이 되면, 그저 교육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이것도 좋겠지만, 주말학교를 하는 이유가 퇴색되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물론 교회마다 사정이 있어서 딱히 제가 말씀드린 관계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가능하면 주말학교와 교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이지만 운영에서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주말학교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트리니티의 경우 교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다. 다만 담임 목사가 교장으로 있으나 부교장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트리니티의 운영권이 부교장과 교사들에게 있어 학생 선발, 학부모 교육, 교사 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이 자유롭다. 재정도 독립되어 학생들의 수업료(한 학기에 10만원)로 운영된다. 사용한 수업료는 학부모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이런 독립된 운영은 트리니티에 소속된 교사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신바람 나는 교육을 하도록 격려하는 수단이 되었다.

3.4. 부모 학교에 대해

2008년부터 체계적으로 부모교육을 하기 위해 ‘트리니티 부모학교’를 개설했다. 부모학교는 매 달 첫째, 둘째 주 오후 예배 후, 둘째 주 토요일에 모이며 주일 모임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토요일 모임은 약 8시간 소요된다. 주일 모임의

프로그램 구성은 먼저 차와 다과로 삶을 나누고 교재를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토론한다. 그 후 교재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서로 나눈다. 처음에는 딱딱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부모 학교를 운영하니 부모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와 자녀 교육의 애로점을 나누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진솔한 시간이 되어 오히려 모임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부모학교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지만, 부모학교의 개설 즈음에 전 교인 대상 교육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리니티의 경우 전 교인 대상 ‘남부전원 교육축제’를 개최하여 주일의 설교와 행사를 ‘자녀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강사의 강의와 강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분임토의, 저녁식사와 교제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몰아 부모학교를 개설하였다.

나가며

우리 자녀들은 학교와 문화, 가정에서 세속적 관점에 기초한 가치와 사상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경적 관점에 기초한 교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깊이 인식하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아이들은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일관된 관점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세기관이 일관되게 성경적 관점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렵다. 이 경우 교회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는 성도인 부모들을 교육하고 교회 공동체 자녀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교육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교회, 국가, 사회의 미래가 있다. 지금의 교육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대안은 학교설립이다. 전일제, 방과 후, 주말, 빌리지 스쿨 등의 형태 중 자신의 교회에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글의 끝 부분에 세례 교인 500명 규모의 교회인 남부전원교회의 트리니티 기독교학교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교회가 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 트리니티는 평택송탄 지역 기독교사 모임을 모태로 설립된 기독교학교이다. 기독교사

모임과 지역교회가 연합한 모델이다. 또한 교사들이 공교육의 교사들과 회사 연구원, 학원 강사이다. 교회가 주말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반드시 인적구성이 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성경적 분별력을 갖고 살도록 가르치기 원하는 헌신된 부모들 몇 명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트리니티의 교육과정 중 ‘독서’는 전문적 교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학교 설립에 필요한 것은,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기 원하는 헌신된 교역자와 부모들이다.

[부록- 여러 유형의 교회학교 소개]

한국기독교교육진흥원 주관 주말교회 기독교학교 매뉴얼 공청회 자료집 중 김신정(CLM대표)목사님의 글과 기독교대안교육협회의 컨퍼런스자료집을 토대로 여러 유형의 교회학교를 소개한다.

1. 경기도 포천 사랑방교회 꾸러기학교 (홈페이지 www.sarangbang.org)

꾸러기학교의 교육목적은 사랑방교회의 신학적인 기초가 되는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다. 창의성 계발과 사랑의 관계, 함께 사는 삶의 경험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 전일제 교회학교이다.

2. 사랑의 교회 - 주말교회 주일학교

안성 수양관에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말과 주일을 이용하여 쉼과 회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시에 성도들에게 영적 문화적 유익을 주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말사역의 목표를 “가족 + 교회 / 놀이 + 예배 / 문화 + 영

성 / 자연 + 도시”로 설정해 두고 있다.¹⁹⁾ 이 학교는 교회학교의 형태로 주일 학교 연장선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주일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성격은 일반 주일학교의 성경공부와 문화프로그램이 어우러진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3. 상도중앙교회 주말학교(<http://www.sdja.or.kr/>)

상도중앙교회는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주말 활용프로그램으로, ‘다니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중1~고2를 대상으로 주 2-3회로 수학반, 영어반, 과학반, 영어 회화반, 논술 지도반을 수준별로 운영한다. 다니엘학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확대실시로 인해 기존의 입시학원들의 주말 학원운영강화가 더욱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병폐로 학생들의 주일성수 기피, 신앙과 학교공부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도 이제 영어성경 위주의 기본적인 학습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인 ‘신앙-학습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신앙훈련 강화 및 학교공부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앙훈련과 학교 학습을 병행하는 주중사역”이 절실히 요청되며, 그에 따른 대안으로 “다니엘스쿨”을 운영한다. 특히, 주일/토요일을 이용한 『라마나웃』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니엘학교 운영은 더욱 효과적이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데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또한 주일교육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기독교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6,7세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꿈동이 학교를 하고, 이후에 유초등부를 대상으로 주말학교프로그램으로 ‘어와나’교육(토요일 2시부터)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19) 김은식, 주5일 근무시대를 위한 통전적 주말교회 학교 연구,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2006, p68

4. 아름다운마을 주말학교(<http://cafe.daum.net/maeulschool>)

아름다운 마을 주말학교는 도시공동체인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말학교 프로그램으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함께하는 가치의 체득, 생명과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생태적인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주말계절학교는 북한산을 놀이터로 뛰노며 배우고, 교육사랑방은 마을공동체교육, 생명평화교육의 의미를 배운다. 믿지 않는 가정의 어린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점 있는 반면에 기독교적인 교육의 요소가 약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5. 좋은 맘 행복한 아이 학교.(cafe.daum.net/bibleb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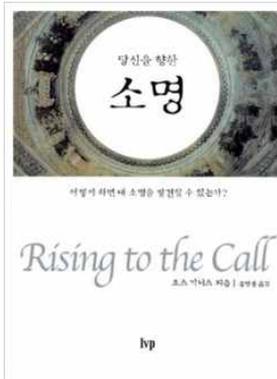
주중에 성경공부방과 주말 성경공부방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성경공부를 위한 학교

' The call and The talent '

교회학교 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장슬기 (안산동산고, 협동학습연구회 과학과대표)

1. The Call : 두 가지 부르심(소명)에 관해



** call [kɔ : l] n.

- ① 부르는 소리, 외침(cry, shout)
- ② (전화의) 통화, 전화를 끊, 걸려온 전화
- ③ (짧은) 방문, 내방, 들름; 기항, 정차.
- ④ 초청, 초대; 앙코르; 소집(명령); 정호, 출석 호명;
- ⑤ **천직, 사명. (직업 · 사명 등에 대한) 소명(召命).**

‘1787년 어느 날 저녁 영국의 한 젊은 국회의원이 국회 옆에 자리 잡은 자기 집에서 무슨 종이를 촛불에 비추어 열심히 읽고 있었다. 월버포스는 노예매매폐지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영국인들은 대부분 노예매매가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중단되면 경제적인 파산이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예매매를 잘못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월버포스는 연구를 거듭할수록 너무나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나중에 하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 노예매매는 너무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하며 치유할 수 없는 악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 싸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이 시간부터 폐지가 성사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

존 폴락 (윌리엄 월버포스의 전기 작가)는 ‘그 때가 영국과 세계 역사의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영국 국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도덕적 업적’이라고 묘사했고, 역사가 트레벨얀(G. M. Trevelyan)은 ‘세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역사가는 월버포스가 두 번째 과제에 성공함으로써 영국을 프랑스혁명에서 구했다고 평가했다.

윌리엄 월버포스는 1787년 10월 어느 날 일기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큰 과제를 주셨다. 그것은 노예 매매의 폐지

와 영국의 악습(Manners)의 개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인 ‘직업적인 소명’이다.

1) 두 가지 부르심(소명)

① 구원에로의 부르심(일차적인 소명²⁰⁾) : 소명은 구원과 거의 동의어이다. 소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그분에게로 부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교회는 곧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구원에로의 부르심은, 곧 죄에서 의로의 부르심이자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며, 불순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에 대한 부르심인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동일한 무게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 곧 온 인류에 외쳐 구원으로 초청해야 할 의무이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제자화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할 지상명령이 주어진 것이다.

② 직업에로의 부르심(이차적인 소명²¹⁾) :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차적 소명은,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묘사될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골 3: 23)”

즉,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차적인 소명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려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난 국가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변혁시켰다. 특히, 소명은 ‘재능(달란트)’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재능(달란트)를 통한 직업에로의 부르심으로 확장되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쉴 피조세계의 어느 한 영역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내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으신 곳은 없다”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교회교육이 ‘구원에로의 부르심’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20) 일차적인 소명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이다.

21) 이차적인 소명은 ‘모든 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의 부르심이다.

다. 두 번째 부르심이며 더 확장된 제자도인 ‘직업에로의 부르심’에 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직업에로의 부르심’은 무관심으로 소외되거나, 이원론적 관점으로 왜곡²²⁾된 채 교인들과 학생들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다.

2) 이원론을 넘어서기

①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 본 이원론

윌버포스는 하마터면 간발의 차로 자신의 원대한 소명을 잃을 뻔했다. 그 위기의 시작점은 아이러니하게도 1785년 25세 때 회심한 시점이었다. 회심 직 후 그는 자신의 은사이자 꿈이었던 정치를 집어치우고 목회나 선교 즉 기독교 사역의 길로 접어들 뻔했다. 당시나 지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처럼 윌버포스 역시 ‘영적인 일’이 ‘세속적인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존 뉴턴²³⁾(John Newton)의 설득을 통해 윌버포스는 정치인의 길에 접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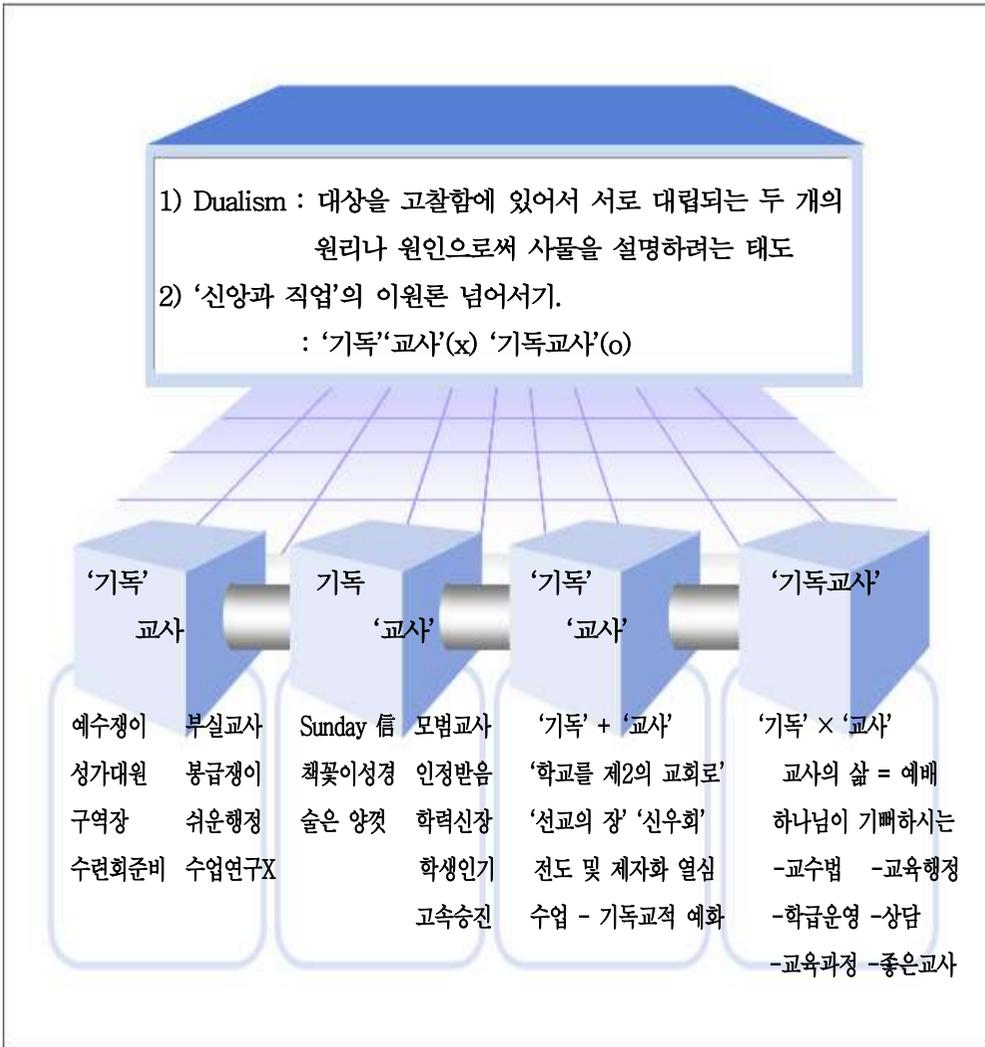
뉴턴은 ‘나는 주님이 국가를 위해 정치를 통해 일하도록 당신을 세우셨다고 믿고 있으며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설득했다. 이 후 윌버포스는 뉴턴의 조언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은 그를 국회의원으로 억압받는 자들의 자유를 옹호하도록 부르고 계셨다.

22) 첫째는 가톨릭적인 왜곡이다. 즉 세속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영적인 직업만을 높은 가치로 참된 부르심이라고 가르치는 왜곡현상이다. 오늘날에도 가톨릭이나 개신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사제나 수녀 또는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참된 소명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 직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직장 신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만을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장은 단지 복음사역의 터일 뿐이라는 잘못된 해석이다.

둘째는 개신교적인 왜곡인데, 이는 영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세속적인 것을 격상시킨 세속적 이원론이다. 칼빈은 ‘자유사상가에 반하여’란 글에서 비합법적인 직업들까지도 소명(비록 풍자적이긴 하지만)으로 언급한다. “윤락업자도 바쁘게 장사해야 하고... 도둑도 담대하게 훔쳐야 하는데, 각각 자기 소명을 좇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거래-직업 등과 같은 단어들이 소명과 동일시하며 사용되기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직업을 가지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왜곡되었다. 소명의 세속화라고 볼 수 있겠다.

23) 노예상인으로 일하다가 회심하여 찬송 Amazing Grace(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목사

② 이원론을 넘어서기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이원론을 넘어서는 역할모델

: 김교신선생님(교육), 아브라함 카이퍼(정치, 출판), 김영길(자연과학),
윌리엄 윌버포스(정치), 프란시스슈퍼(철학), 김순권박사(과학자),
아브라함 링컨(정치), 마틴루터킹(목회와 사회참여), , ,

③ ‘직업에로의 부르심’에 대한 이원론 넘어서기, 그 대안

기독교적 가르침의 목적 (서구 기독교교육학자들의 정의)

- (1)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조지 R 나이트)
- (2) 책임있는 제자도 (해로 반 브루멜른)
- (3)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제자도 (반다이크)
- (4) 무너진 관계(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를 회복과 재창조하는 것 (노오만 디 종)
- (5) 모든 지식은 하나님 안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프랭크 게블라인)
- (6) 진리의 공동체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출하는 일 (파커 팔머)

‘기독교학교에서의 가르침’과 ‘교회교육에서의 가르침’은 서로 상보적 관계이다.

교회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구원에로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치며, 구원받은 아이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성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복음의 동역자로 성장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반면, **기독교학교교육**은 구원받은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진리가 바탕이 된 지식(기독교세계관으로 재해석된 지식)을 겸비하도록 전문성의 측면에서 도울 수 있다. 즉 ‘직업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를 위해 준비된 기독교학교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신앙을 가진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교육과 입시사교육을 통해 세속적²⁴⁾ 교육과정으로 양육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왔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신앙과 학문’, ‘신앙과 직업’, ‘신앙과 가치관’, ‘신앙과 문화’, ‘신앙과 세계관’이 분리된 ‘이원론적 배움의 구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교육의 현실 속에서 이원론을 넘어서,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기독교학교로 풀기엔 그 파급력이 미미하므로, 그 대안이 바로 교회교육이라고 확신한다. 비록, 교회학교가 기독교학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교육할 수는 없겠지만, ‘구원에로의 부르심’만을 가르치던 교회교육과정 속에 ‘직업에로의 부르심’을 녹여 넣게 된다면,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책임지는 소명을

24) 인본주의, 다원주의, 진화론적 세계관, 국가주의적 관점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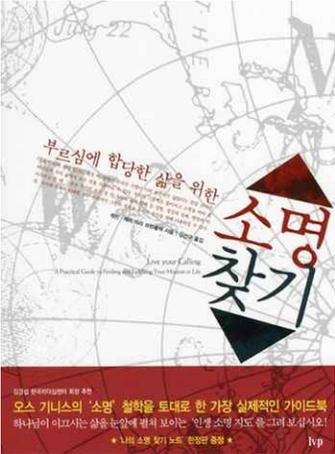
지는 **기독인과 직업소명공동체**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교회교육은 Level 2단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교회학교에 이 새로운 패러다임²⁵⁾의 교육과정 도입함으로써,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기독교 가치(세계관)를 가진,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세상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책임지는 청지기적 소명을 품은 제자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을 ‘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남은 과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소명(진로)탐색프로그램이나 비전캠프**를 연구-개발하는 일이다.

‘은전한 소명의식을 갖지 못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 오늘날의 서글픈 현실이다.’ - 옥한흠 목사

2. The talent : 은사(달란트)에 관해서



소명 발견과 성취를 위한 인생 소명 지도 그리기 !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를 보여 주는 자세한 지도가 필요하다. 인생 소명 지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술, 관심사, 능력 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자세히 안내한다. 이 책은 가야 할 길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중고등학생과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1) 오스 기니스의 ‘소명’에 기초한 성경적 소명관
- 2) 인생 소명 지도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발견하기

25) 교회교육을 통해 이원론을 넘어선 ‘기독교의료인, 기독교정치인, 기독교경제인, 기독교사, 기독교과학자, 기독교수, 기독교기술자, 기독교출판인, 기독교언론인, 기독교연예인, 기독교스포츠인...’을 이 땅에 세우는 것

3) 여섯 가지 평가도구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직업 정보 등을 통해 자신의 은사와 소명 찾기

- 4) 자신의 인생 비전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실행하기까지 전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는 책
- 5) 풀타임 직업뿐 아니라 자원 활동 및 비영리 단체 활동 관련 소명 찾기

talent [tælənt]n.

- ① U (타고난) 재주, 재능; C 재간, 수완, 솜씨.
- ② 「집합적」 재주있는 사람들, 인재; (개인으로서의) 탤런트, 예능인(들).
- ③ **탤런트(옛 그리스·로마·헤브라이의 무게·화폐의 이름).**

♣ hide one's ~s in a napkin **《성서》 자기의 재능을 썩이다(마태복음 X V: 15).**

♣ **talent 그것을 키우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타고난 재능.**

달란트의 비유 : 달란트 비유에서 무익한 종이 질책을 받은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은사)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비교의식에 얽매어 다른 종보다 내 것이 '작다'라는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인식하신 주인으로, 강탈하는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주어진 달란트(은사)를 계발하지 않고 썩게 버려둔 그의 불성실함이, 주인으로부터 질책 받게 된 두 번째 이유였다.

하나님은 아이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계발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유익한 모든 곳에 쓰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교육은 그 범위를 '교회 안'으로 국한시켜 버렸다. 이는 한국 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개인적인 영혼에 관한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공공신학의 부재'로 인해 한국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기보다 '동굴 속 그리스도인'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계발하여 전문성과 탁월함을 통해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길 원하신다. (MI,STONG,MBTI 등의 검사법을 활용하여 은사계발필요)

3. '직업에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찾기(진로탐색) 프로그램

1) 7MM (7Mind Mold)

- ① 7 Mind -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야할 7 가지의 정신영역
- ② Mold

<p>mold¹ - 틀, 원형, 영역 ; 창조주께서 만드신 원형적인 목적들</p> <p>mold² - 곰팡이, 사상균 ; 사상균을 섞여서 썩게 된 타락한 상태</p> <p>mold³ - 옥토 ; 기경되어 하나님의 회복된 영역, 공동체</p>

③ 교육적 차원에서의 7MM 틀거리

7Mind Mold	창조시 목적들 mold ¹	타락한 상황 mold ²	회복된 공동체 mold ³
정치-법조계 (군)	정의, 온전한 권위 질서, 공의, 다스림	경직된 관료주의, 로비와 정경유착, 명예와 사욕, 권력남용 분열과 분파주의	
경제-기술계	경영과 관리, 봉사(서비스) 풍요로움, 나눔, 창의성, 실용, 계발, 발전	정경유착, 환경오염 무차별적 개발, 이윤남기기 경쟁, 돈의 우상화	
교육-목회계	가르침 진리전달 창조세계에 관한 지식	입시교육, 사교육, 비진리, 이단, 국가관과 이념예속 인본주의, 다원주의, 분열과 분파	좋은교사 운동
의료-복지계	치유, 치료, 회복 상당, 희생	경제적 이윤추구, 희생기피, 의약분규, 약물 오남용	
자연-인문과 학계	진리 발견 피조세계에 대한 원리와 법칙발견	인본주의, 다원주의 비진리, 진화론 이념과 철학에 예속	
언론-출판계	정보, 정직 사실과 가치전달	왜곡, 헛소문 성적인 자극, 비진리	
예술-연예계 (스포츠)	은사, 재능, 끼 창조, 미, 자유 표현, 즐거움	경쟁, 성적타락 인기영합, 방종 경제적 부 추구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동산고를 졸업한 이마다 ,,

의료계로 나가는 이마다 부의 축적을 내려놓고, 희생을 즐거워하는 치유자가 되며, 정치-법조계로 나가는 이마다 명예와 권력의 아집을 내려놓고, 공의와 인애와 겸손을 겸비한 존경받는 참된 권위자가 되며, 교육-목회계로 나가는 이마다 분열과 인본-다원주의 비진리를 기경하여, 참진리를 언행으로 가르치는 이 민족의 참스승이 되며, 언론-출판계로 나가는 이마다 왜곡과 상업주의의 탈을 벗고, 정직한 정보와 가치의 의식개혁자가 되며, 예술-연예계로 나가는 이마다 자유를 빙자한 방종과 인기위주의 탈선을 벗고, 은사를 계발하여 즐기며, 타인을 즐겁게 하는 미와 표현의 창조자가 되며, 경제-기술계로 나가는 이마다 정경유착과 경쟁적 부의 축적을 버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풍요로움을 계발하고, 풍요함을 흘러 보내는 나눔의 봉사자가 되며, 자연-인문과학계로 나가는 이마다 독단적인 세계관과 이념과 비진리에 속한 철학적 사변을 뛰어넘어서, 모든 자연과 인문사회현상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선포는 진리의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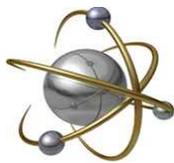
동산의 언덕을 오른 이들마다, 이 아픈 땅을 치유하고, 이 썩은 땅을 개혁하고, 이 얽매어 있는 땅을 자유하게 하며, 이 분열된 땅을 중재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교사 슬기 드림 (dream)



2) 소명찾기(진로탐색) 프로그램 - V.S.P

① MI을 활용한 진로탐색프로그램(중학생)



MI
협동학습
On-Off line
진로탐색
프로그램



체험 전 활동

- 1 차시 : MI check 및 커뮤니티가입
- 2 차시 : MI 모둠 세우기
- 3 차시 : MI 로 본 나의 모습
- 4 차시 : MI 성공인물 조사 과제
- 5 차시 : MI을 활용한 과제 발표
- 6 차시 : 직업10계명 만들기 & Vision Trip 계획 짜기



체험활동

- 7차시: Vision trip 1단계 사이버 체험활동수행
- 8차시: Vision trip 2단계 체험활동 수행



체험 후 활동

- 9차시 : 체험활동발표
- 10차시 : 최종성찰활동

② STRONG과 MBTI와 적성검사를 활용한 진로탐색프로그램(고등학생)

월	주제 및 내용	월	주제 및 내용
3	<p>< 동기유발 및 OT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영상 My Way를 통한 동기유발 2. 꿈 변천사 그래프 그리기 3. 진로탐색 프로그램 소개 <p>(tip) 종례와 조회 때에, '내아들아~, 내 딸아~' 등의 훈화자료를 활용하여 진로에 관한 동기부여</p>	8	<p>< Vision Trip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학 중 대학방문과 인터뷰 2. 체험학습 보고서작성 <p>tip) 인터뷰 시 동영상촬영이나 사진 촬영하며, 체험학습 후 이를 활용하여 보고서 작성</p>
4	<p>< 자기 이해-분석과 직업선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I test (엑셀프로그램) 2. 직업흥미도 test (고용청) 3. MBTI 검사 (기독교세계관 수업) 4. 기질 검사 (기독교세계관 수업) 5. 표준화적성검사 (행사활동) 6. 검사종합분석 후 공통직업추출하기 <p>(tip) 검사는 방과후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실시 할 수 있으며, 공통직업 대략 3가지정도 선택. 목사님과 상의하여 기세 시간에 이루어진 검사를 활용. (tip) 학습태도검사등을 통해 자기관리</p>	9	<p>< Vision Trip 발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Vision Trip 발표 <p>tip) 조회나 종례시간을 활용, 동영상과 사진 및 보고서를 급우에게 복사해서 나눠주며, 각자 받은 복사물은 '나의 학교생활'에 첨부한다.</p>
5	<p>< 프로젝트 팀 세우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군별로 모듬세우기 2.마인드맵을 활용하여 해당직업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 3.모듬이름만들기(창문열기나 브레인~) 4.모듬역할분담 <p>(tip) 게임 등을 활용하여 모듬원들의 친목을 다짐</p>	10	<p>< 미니명사초청 특강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니 명사초청특강(열정있고 젊은 기독교전문인과의 만남) <p>tip) 두란노서원이나 동산고 학부형 또는 졸업생중 직장인을 각 계별로 초청하여, 선택특강식으로 만남의 장을 개최</p>
6	<p>< 성공인물조사 및 직업10계명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군별로 성공인물조사(web) 2. 직업10계명 만들기 3. 결과를 PPT활용발표 (웹전시장구조) <p>(tip) 역할모델로서 인물조사가 이루어지면, 직업10계명을 통해 기독교적 소명의식에 대한 가치를 옹해시킴</p>	11	<p>< 소명교육 및 인생계획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생님 특강 - 소명교육 2. 인생계획표짜기 & 나누기 <p>tip) 소명교육은 직업에 기독교세계관을 녹여넣어, 통일시대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 calling하는 과정이다</p>
7	<p>< Vision Trip 준비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관련 학과 및 방문대학선택 2. Vision Trip인터뷰자료 만들기 3. 인적네트워크구성 : 팀별로 졸업생이나 해당교수님 등 접촉시작, 방문일정잡기 	12	<p>< Vision sketch 발표회 및 전시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Vision sketch 발표회 (2007년 북한비전모임발표회를 참조) 2. 2008년말 결과물 (포트폴리오 - 나의 학교생활, 동영상자료, 사진자료) 전시회 개최 3. 'The Call(소명)운동' 보급 : Cool Box를 활용하여 관련자료를 선생님들께 배포하고, 전시회 및 발표회 관람자들을 위해 관련 CD 나눔으로서 'The Call(소명)운동' 보급 확산
		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팀 피드백 2. 연구부에 결과 및 대안 보고

③ Vision Trip 대학을 가다! - V.T

STRONG, MBTI, 종합적성검사를 통해 나의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진로탐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 이다.

김영세씨는, '아이리버'의 디자이너로도 유명하며, 1986년 실리콘밸리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디자인전문회사인 '이노디자인(Inno Design)'을 설립,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로 키웠다.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미국 IDEA의 금·은·동상, 유럽 디자인계의 최고 권위상인 '레드닷 어워드(Red Dot Award)' 등 국제적 권위의 상들을 휩쓸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석권한 아이리버 및 삼성 애니콜 등이 그가 디자인한 상품들이다.

그는 열 여섯 살에 친구집에서 우연히 본 디자인전문지(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보고, 산업디자인의 매력에 푹 빠졌다. **책과의 만남**이 그에 평생의 목표를 가져다 주었다.

미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남을 이번 방학에 가져 보자구.^^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진로-진학선택의 기회를 갖기 위해 희망하는 대학의 캠퍼스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어떻게? 동일한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선배들이나 친척 대학생들의 안내를 받으며 대학 미리보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거야. 가능하다면 조교들을 통해 교수님께 말씀드려 전공이나 교양강좌를 청강해보는 것만으로도 뜻깊은 나만의 추억만들기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과 함께한 대학탐방기
2007년 1월 18일~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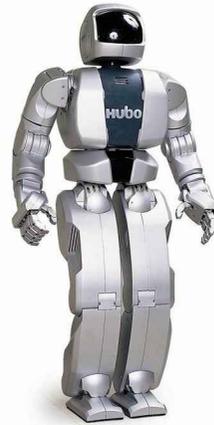
우리들이 고대하던 대학교 탐방일. KAIST, 포항공대를 1박 2일의 일정으로 탐방했다. 이 두 대학교는 자연계학생들이 꿈꾸는 바로 그곳이다.

첫날, KAIST.

자연계의 진로희망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대학이다. 친구들은 인공위성 센터에서 인공위성에 대한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노력과 꿈을 배웠다. 또한 창조관에서 로봇 축구를 보면서 '휴보'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으며, 많은 전시물을 보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다.

둘째 날, 포항공대.

포항에 20년 만에 폭설이(10cm) 내렸다고 한다. 눈이 쌓인 것을 무척 신기한 듯이 설명하시는 분에게는 죄송하나 우리 학생들은 별 감흥이 없었다. 어제 강원도에서는 1m 눈이 왔다고 했다. 오후에 학생들이 사전에 신청한 8개 학과로 학과별 탐방을 했다. 나는 화학과를 신청하였기에 생명과학관으로 향하였다. 우리가 견학한 곳은 '초분자 화학을 이용한 나노 소자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최첨단 시설과 국제 특허 취득, 연구단들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친구들의 눈빛에서, 언젠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자신들을 꿈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가. 진로와 학부를 결정하라 (MBTI,STRONG,적성검사와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결정)

● 1순위		
● 2순위		
● 3순위		
vision Trip	동참할친구	
	대학/학부	

나. 함께 할 친구들과 Vision Trip 계획을 짜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우미와의 연락을 미리 연락하여 방문 준비를 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라.(담임 쌤들이 나눠주실 예정) - E-mail을 통해 사전에 도움을 요청하고, 방문일시와 만남의 장소 그리고 교양수업이나 전공수업에 청강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미리 문의하라. ● Vision Trip 계획서와 질문지를 만들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 방문일시, 방문장소, 만날 사람, 사전조사자료(웹) - 아래와 같은 인터뷰 질문지를 준비하여, 계획서에 첨부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3-8반 임수정학생의 연세대 대기과학과 탐방시 인터뷰질문 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세대 대기과학과의 학생들은 VISION이 분명한가요? 2.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기과학과의 전망? 3. 다른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대기과학의 현 위치? 4. 본교에서 다른 나라로 유학가는 학생들이 많나요? 5. 마이클무어의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의 내용은 과장? 현실? 6. 최근, 동해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는 등 난류성 어류들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에 들어선 것인가요? 7. 대기과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시기에 준비해야할 것은? 8. 교수님이 원하시는 학생상? 9. 대기과학과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와 졸업 후 진로는? 10. 이명박정부로 바뀜에 따라 논술의 비중 정도는? 11. 기후모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12. 산업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다. 이제 Vision Trip 을 떠나라.

대학방문 Vision trip 시 인터뷰는 이렇게 하세요.

- 준비물 : 계획서와 질문지, 가벼운 옷차림,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MP3 녹음기
- 역할분담 : 디카담당자, 캠코더 담당자, MP3 녹음담당자, 기록자 등
- 인터뷰 : 사전에 조사한 대학교의 학부-학과의 도우미(동산고 선배)나 가능하다면 지도교수님과 인터뷰한다.
 - 비디오카메라나 카메라로 찍으며 인터뷰한다.(최대한 가까이에서 찍어야 목소리가 녹음된다. 창문을 닫고 잡음을 최소화하도록)
 - 인터뷰 내용 : 관련학부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수업), 직업적 전망, 동아리활동, 수능입시를 위한 준비, 학교의 자랑 등등 준비한 '질문지'를 활용하여 인터뷰한다.
- 견학시설 : 동아리 활동반, 관련학부의 수업을 청강할 수 있다면 도우미 선배들이나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청강한다.

라. Vision Trip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만들기

④ 비전캠프를 통한 기독교명공동체 만들기 - V. C

가. 목적 : 주제강의를 통해 직업에의 소명과 리더십으로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며, 한국에서 7가지 영역(정치(법조)계-경제(기술)계-교육(목회)계-의료계-학문계-언론(매스컴)계-예술계)에서 의로운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과 대학생을 초청하여 선택식 강의를 경청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게 한다.

나. 일시 : 방학 기간 중 교회 수련회 중 2일

다. 대상 : 신앙동아리 학생 및 관심있는 재학생 전원

라. 동역자 : 교회 대학생 / 교회 평신도 기독교전문인

마. 프로그램

1. 주제 강의 : 직업에로의 소명 / Vision과 부르심 / 리더십 특강
2. 선택식 특강 : 영역(7MM)별 미니 명사 선택특강 / **소명공동체 만들기**
3. 대학정보 장바구니담기 : 교회의 대학생들과의 만남 - 대학과 학과정보담기

4. 입시 사교육 문제에 대한 3가지 제언

과거 일제시대에 1교회 1학교 운동이 들끓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미션계통의 학교들이 신사참배로 인해 폐교를 결정하려 했을 때 오히려 교인들은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폐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었다. 결국 ‘자녀의 입신양명’의 우상이 되어 신사참배의 죄를 지은 선조들로 인해, 이 후 분단된 ‘**남한교육이 입시지옥이 되지 않았는가?**’ 반문해 본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학교육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교육이나 입시에 대한 교회안의 학부모들의 반응이 결코 비그리스도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입시-사교육이란 철옹성을 깨뜨리기 위한 대안이 바로, 지금까지 제시한 ‘**교회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다. 먼저, ‘**자녀의 입신양명**’을 **우상화한 한국 교회와 학부모성도가 스스로 회개하고**, 그동안 내려놓았던 ‘**직업에로의 부르심(소명교육)**’에 **교회교육이 전력한다면**, 이 입시지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는가? 교회교육을 통해 어떤 정권도 깨뜨리지 못한 철옹성이 무너지는다면, 복음은 더욱 힘을 얻고 한국교회는 ‘**안디옥교회**’처럼 칭찬받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에 세 가지 운동을 제안하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배움 본래 목적의 회복

: ‘입시교육’에서 ‘소명교육’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교회교육과 미션스쿨에서부터 ‘소명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연구와 실천이 시작되어야 한다.

2. 나눔이 있는 배움

: 사교육의 문제는 배움에 경제논리가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사교육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반대정신으로 배움을 무료로 하는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교회가 평일 빈곤층 자녀들을 위한 야학터로 자리매김** 되어, 교회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값없이 배움을 나누어주는 것을 시작한다면, **사교육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3. 즐거운 배움

: 협동학습이나 NIE 그리고 깨미동 등 ‘좋은교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교수법을 교회교육에 접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배움 자체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수학습운동을 전개한다면 교회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